

조선 전기 간행 徽州本の 성격과 수용 양상*

이 유리**

1. 머리말
2. 조선 전기 간행 휘주본의 판본과 성격
 - 1) 대상 서적의 서지적 검토
 - 2) 간행 주체별 출판문화사적 검토
3. 조선에서의 수용 양상
 - 1) 15세기 『영규율수』의 유입과 간행
 - 2) 16세기 성리서의 간행과 유통
4. 맺음말

1. 머리말

조선시대는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국내외의 서적을 수집하고 활자로 간행하여 보급하는 한편, 개인은 사행 혹은 인맥을 통해 서적을 입수하였다. 특히 사림이 본격적으로 정계에 진출하는 16세기에는 성리학적 질서를 마련하고 보급하고, 학문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자 중국본 성리학서의 입수와 간행에 힘을 기울였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원대에 이어 명대 초까지 출판이 침체되는 현상을 보인다. 이는 학풍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朱熹(1130- 1200) 사후 문인들은 학문의 이론적인 발전을 추구하기보다 이미 스승에 의해 완성된 학문을 통해 수양하고 후대에 전승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이로 인해 주희의 저술조

* 이 논문은 2020년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내 신진학자 초청 연구교류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한국학중앙연구원 전통한국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차 읽지 않게 되면서 원대에 출판된 서적 중 다수를 접하는 것은 의서와 類書, 李白과 杜甫 등의 문집, 그리고 과거 수험용 서적이었다.¹⁾ 그리고 명초에는 과거 수험 서적을 비롯하여 왕조의 정통성을 나타내기 위해 편찬한 역사서와 방각본 통사, 송대 학자들의 언설을 유서 형식으로 편집한 성리서, 명대 문인들의 시문집이 다수를 차지한다.²⁾

출판량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비로소 成化 연간(1465-1487)이다. 『史記』·『文選』 등의 고전과 『二程全書』·『朱子大全』·『朱子語類』와 같은 程朱의 저술 및 관련 서적들이 재간되기 시작한다.³⁾ 그러나 이때는 주로 관에서 주도하였고, 상업 출판은 北京과 福建 지역 등에서 거업서가 간행되는 정도였다.⁴⁾ 이외의 蘇州, 南京 등의 강남 지역에서는 嘉靖 연간(1522-1566) 이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萬曆 연간(1573-1608) 이후가 되면 번영을 이룬다.⁵⁾

胡應麟(1551-1602)은 『經籍會通』에서 16세기 후반이 되면 출판 중심지는 소주·남경·杭州·建陽으로, 출판량은 복건이 가장 많지만, 판각은 소주와 항주가 가장 좋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折江의 湖州와 安徽의 歙縣의 판각이 급격히 정교해져서 소주 및 항주와 다름 정도라고 하였다.⁶⁾ 호응린은 徽州⁷⁾에 방문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당시 휘주가 출판으로 알려져 있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명초에 저술된 『新增格古要論』에는 품질이 좋은 종이 9종이 언급되었는데, 3종이 안휘에서 생산된 것이다. 그리고 5종의 떡 중에는 안휘와 江西가 주를 이룬다.⁸⁾ 휘주 지역은 산지가 많아 농지가 적기 때문에 고대부터 상업이 발달하였고, 唐代부터 품질 좋은 붓, 떡, 종이, 벼루가 생산되었는

1) 井上進(이동철, 장원철, 이정희 옮김), 2013 『중국출판문화사』, 민음사, 212-213면.

2) 위의 책, 215-217면.

3) 위의 책, 263-268면.

4) 위의 책, 279-280면.

5) 위의 책, 290-292면; 大木康(노경희 옮김), 2007 『명말 강남의 출판문화』, 소명출판, 29면.

6) 胡應麟, 『經籍會通』 卷4, 少筆山房筆叢(大木康, 위의 책, 51면에서 재수록).

7) 명대 휘주는 현재 安徽省 黃山市 일대이다. 1121년(宣和 3)에 歙州에서 휘주로 개칭되어 청대까지 이어졌다. 명대 휘주에는 6개의 부속 현-歙縣, 休寧, 祁門, 績溪, 黟縣, 婺源-이 있는데, 휘주부는 흡현에 위치하였다.

8) 曹昭, 『新增格古要論』, 권9(위의 책, 84-87면에서 재수록).

데, 이는 휘주에서 출판이 발달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이처럼 휘주는 중소도시로, 복건은 물론, 가정 연간 이후 출판량이 급증한 강남 지역의 다른 도시들에 비해 규모는 작았던 것으로 보이나, 15세기 중반에 이미 각수 집단에 의해 官版과 私版의 수가 증가하고 있었다.⁹⁾ 이러한 배경에는 앞서 언급한 문방용구 제작 기술 외에도 상업의 발달, 학문에 대한 높은 관심, 각수 집단의 정교한 판각 기술 등을 꼽는다.¹⁰⁾ 특히 휘주는 二程과 주희의 본적으로, 주희는 紫陽書院을 지어 10년간 강학하기도 한 영향으로 이후에도 존송되었다.¹¹⁾ 원대에는 정주학을 계승한 절강의 金華學派, 강서의 雙峰學派와 더불어 新安學派가 있었다. 이들은 금화학파와 달리 중앙 정계와 두터운 인맥이 없었으므로 저술 활동과 서원을 통한 후학 양성, 그리고 출판을 통해 학문을 보급하였다.¹²⁾ 또한 휘주 상인을 유상(儒商)이라고 부를 만큼 상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도 학문적 소양을 갖춘 이가 많았는데, 이들은 서적을 상품화하여 뛰어난 판각 기술과 절차를 간소화하였다.¹³⁾

이상의 내용으로 미루어, 적어도 가정 연간 이전에 조선에서 입수할 수 있었던 서적은 다른 시기에 비해 더욱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¹⁴⁾ 그런데 휘주본은 15세기 말부터 16세기 중반까지 국내에서 간행된 것으로 확인된 것만 6건이다. 사행 당시 방문할 수 있었던 곳은 북경까지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는 당시 중국의 출판문화사와 서적 유통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계

9) 井上進, 2011 『明清學術變遷史: 出版と傳統學術の臨界點』, 東京:平凡社, 68면.

10) 翟屯建, 2005 『휘주 목판과 서적간행 연구』 『안동학연구』 4, 152-162면에서 휘주에서 출판이 발전한 요인에 대해 이상의 네 가지를 지적하였다.

11) 명대에는 외지에 진출한 상인들이 자양서원을 지어 주희의 제사를 지내거나 휘주 출신 간의 협력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휘주 외에도 소주, 항주 등에 소재한다.

12) 中砂明德(강길중·김지영·장원철 옮김), 2009 『우아한 탄생: 중국 강남 문화사』, 민음사, 92면.

13) 翟屯建, 앞의 논문, 159-160면.

14) 『中宗實錄』 36년 6월 22일 丁丑. “領議政尹殷輔議, 近來譯官等求購書冊, 例稱難得, 持價而還. 必因中朝禁令, 不得隨意買來也.” (강명관, 2014 『조선시대 책과 지식의 역사』, 천년의 상상, 438면에서 재수록.) 이를 통해 중종대에 중국에서 서적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가 이들 서적 중 다수는 명종대 이후 학술과 간행을 주도했던 李滉(1501-1570)과 문인들에게도 수용되었다가, 16세기 말 임진왜란으로 일본에 유출되어 다시 수용되었다. 따라서 조선 간행 중국본은 결과적으로 동아시아의 서적 유통에 가교적 역할을 하였으며, 그 양상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휘주본은 조선 후기에도 꾸준히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前漢書』(侍講院 구장), 『二十子全書』(尹汲(1697-1770) 구장), 『唐雅』(摛文院·弘文館 구장) 등이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조선 전기 간행 중국본의 동아시아 서적교류사적 의미에 주목하여, 확인된 휘주본에 한해 살펴보고자 한다. 대상 서적 6건을 서지적으로 검토한 후, 당시 휘주의 출판문화사를 통해 그 성격을 파악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시기별로 국내에서의 수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선 전기 수용 중국본과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 준 영향에 대한 연구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하며, 보다 넓은 관점에서의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2. 조선 전기 간행 휘주본의 판본과 성격

1) 대상 서적의 서지적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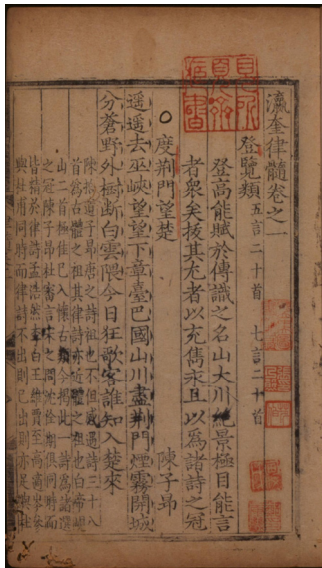
조선본에 남아 있는 저본의 각수명과 서발문의 내용 등을 통해 16세기까지 적어도 6건의 휘주본이 조선에 유입되어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서적은 『瀛奎律髓』·『心經附註』·『天原發微』·『晦菴先生語錄類要』·『朱子實紀』·『太師徽國文公年譜』¹⁵⁾이다.

이 절에서는 조선에서의 초간 시기에 따라 크게 15세기와 16세기로 나눈 후,

15) 『태사휘국문공연보』의 경우 간행을 추진한 것은 福建省 尤溪縣 縣丞 葉公回이나, 섭공회 는 무원 출신이며, 판각 역시 휘주의 각수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포함시켰다. 또한 6건 외에도 九州大學 소장 필사본 『주자어류』가 휘주본을 토대로 필사한 것임을 石立善(2008)이 밝힌 바가 있으나, 필자가 직접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조선본의 저본이 된 휘주본에 대해 서지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1) 15세기 - 『瀛奎律髓』



〈그림 1〉 휘주본 『영규율수』(대만 국가도서관)

方回(1227-1305)¹⁶⁾가 1283년(至元 20)에 唐·宋代의 오언 및 칠언율시를 뽑아 엮은 선집이다. 시대순으로 제재에 따라 49항목으로 분류하여 각 권에 배치하였는데, 모두 385인의 3,014수가 수록되어 있다. 이 책에 수록된 시는 두보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송대 江西詩派의 작품의 비중이 크다. 방회는 이후에 살펴볼 『천원발미』의 간행에 관여한 인물이기도 하다.

『영규율수』의 초간 시기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이 책에 수록된 1467년(성화 3) 龍遵의 서문에서 방회와 교유했던 陳櫟의 識를 인용한 부분에 당시 이 책이 필사본으로 유통되고 있었고, 그나마도 틀린 부분이 많았다고 하고 있어, 적어도 방회 생전에는 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¹⁷⁾ 현

전본 중 연대가 확실한 명판본 중 가장 이른 것은 1467년 휘주 歙縣의 자양서원 간본으로, 이는 徽州知部였던 용준이 자양서원에 명하여 간행된 것이다. 자양서원본은 현재 대만 국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¹⁸⁾

이 판본을 살펴보면, 책수에 1283년에 작성된 방회의 『瀛奎律髓序』가 있다. 조선본에는 서문의 제2장 裏面에 『成化三年仲春吉/日紫陽書院刊行』이라는 목기가 있으나, 이 판본에는 해당 면이 유실되어 있다. 이어서 『瀛奎律髓目錄』이 있다.

매 권수 첫 행에는 권수제 및 권차가 있다. 다음 행에는 권제와 수록된 시의 편수가 있으며, 그 다음 행에는 각 권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 후, 개행하여 시를 수록하고 있다. 시마다 개행되어 있고, 각 시의 마지막에 세주로 해설되어

16) 자 萬里, 휘주 흡현 출신이다. 남송 理宗 때에 급제하여 嚴州知部 등을 역임하였다.

17) 백승호, 2006 『朝鮮時代 『瀛奎律髓』 간행과 『聿髓刊誤精選』』 『서지학보』 30, 92면.

18) 청구기호: 403.1 13690.

있다. 그리고 시의 우측에 방회가 표기한 반월 형태의 圈點과 標點이 있다.

판식은 四周雙邊, 有界, 10行21字, 두 쌍의 上下內向黑魚尾, 黑口이고, 판심제는 『律髓卷幾(刻手名)』이다.

(2) 16세기

① 『心經附註』

眞德秀(1178-1235)가 경전과 여러 유학자들의 격언 중 심성 수양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뽑아 찬집한 『心經』에 명나라 程敏政(1445-1500)¹⁹⁾이 1492년(弘治 5)에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주석을 단 것이다. 이 책은 원래 『眞文忠公心政二經』으로 편찬된 것이나, 정민정은 서문에서 정치는 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나, 마음에 얻음이 있으면 體와 用을 따로 구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면서 오직 『심경』만 취한 의도를 밝히고 있다.²⁰⁾

본문은 『진문충공심정이경』 중 『심경』과 동일하나, 4권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다. 명판본 『심경부주』는 중국 湖南圖書館에 零本으로 확인된다.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조선에서 처음 간행된 光州本과 대조해보면 반엽당 행자수가 일치하지 않고, 汪祚의 識가 끝난 후에 있는 교정 및 간행 참여자 명단이 조선본에는 생략되어 있다.

② 『天原發微』

鮑雲龍(1226-1296)²¹⁾이 易의 핵심 용어와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해설한 것을 1461년(天順 5) 鮑寧(1391?-1462?)²²⁾이 辨正한 책이다. 25개의 편이 5권에 걸쳐

19) 자는 克勤이고 休寧 출신으로 南京 병부상서였던 程信의 아들이다. 그가 10세 때 아버지의 임지인 泗川에 있을 때, 巡撫使였던 羅綺가 英宗에게 천거하여 한림원에서 독서하게 되었다. 1466년(성화 2)에 진사에 급제하여 편수에 임명되었으나, 1499년(홍치 12)에 科擧와 관련되어 투옥되었는데, 석방된 지 4일 만에 죽었다. 이후 예부상서에 추증되었다. 『明史』 『列傳』에 수록되어 있기도 하다.

20) 程敏政, 心經附註序. “故今獨取心經, 爲附註, 而政經未暇及焉. 以爲誠有得于心學, 則舉而措之, 無施不宜. 其體備其用周, 有不俟乎他求者矣.”

21) 자는 景翔, 호는 魯齋, 흡현 출신이다.

22) 호는 謚齋, 자는 庭謚이며 흡현 출신이다.

수록되어 있다.

포운룡이 이 책을 저술한 시기는 수록된 自序의 작성 시기가 1290년(至元 27) 이고, 교정자인 방회가 『天原發微序』를 작성한 시기가 이듬해인 1291년인 것으로 미루어 1290년 이전인 것으로 추정된다.

대만 국가도서관 및 일본 국립공문서관 소장본에는 1290년 서문 외에도 1296년(元貞 2)에 작성한 방회의 서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그는 포운룡과 더불어 10년간 편지를 통해 문답을 주고받았으면서 서문을 신겠다고 승낙을 받아 놓았는데, 포운룡이 간행을 진행함에도 아직 서문을 쓰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 사이에 포운룡이 병으로 사망하게 되면서 한 권이 간행되지 못했다.²³⁾ 그러나 1299년(大德 3) 戴表元의 서문을 통해 이 책이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²⁴⁾ 포영의 1461년 제문에서도 이 책이 원정 때에 간행되어 성행하였고, 지원(1335-1340) 때에 수정되었다고 하였다.²⁵⁾ 따라서 초간 시기는 알기 어려우나, 원대에는 적어도 1296년과 1299년에는 간행된 것으로 생각된다.

명대에는 포영이 변정하여 1461년에 휘주 흡현의 耕讀書堂에서 간행되었다. 포영은 제문에서 간행 경위를 밝혔는데, 이 책이 전란 이후 판본이 거의 전하지 않게 되었고 그나마 전해지는 필사본에는 오류가 많다고 하였다. 그러던 중 正統 연간(1436-1449)에 마을의 사대부가 중각하고자 하여 포영 등도 매우 소망하였으나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1460년 봄에 교정 및 변정에 참여하여 본문이 충실해지자 간행을 추진하여, 마을 사람들의 지원도 받아 완성되었고 하였다.²⁶⁾

또한 1461년본은 기존의 오류를 수정하여 변정하였는데, 『辨正凡例』에 언급된

23) 方回, 天原發微序. “往復難問將十年, 敬齋梓其書行世, 回宿諾魯齋以序文. 序文至以今年十一月十七日日南至, 而魯齋前十日, 以疾不起, 家僅有一孫. 嗚呼, 痛哉! 牖下尙有一卷未刻, 敬齋爲意其事, 回聞之輒增書.”

24) 戴表元, 天原發微後序. “遂爲板傳之, 以成其勤名, 爲慰其遺志.”

25) 鮑寧, 題. “天原發微五卷, 刻梓於元之元貞, 當時盛行矣, 至元季之變板.”

26) 鮑寧, 題. “遂毀于兵, 抵今又百餘年, 印本之存者且罕, 見抄錄以傳者, 益多訛. 正統中郡士大夫欲重刻之, 吾黨深有所望, 而竟不克就. 去年春子曰, 泰執是書刻本, 讀之間舉疑義與夫字之訛者請正. 予因參其章旨之, 不明者辭理之, 有失者辯著其下, 泰因之稍有所得, 而益好之. 乃謀鏤板以傳, 子弟曰, 復力贊之, 遂亟募工趨事. (中略) 於是親友環溪朱允迪, 以白金三兩, (中略) 書凡數十萬言, 計四百三十板, 刻畢重校, 而改刻者, 五十餘板. (下略)”

변정 방식은 주희의 『孝經刊誤』 및 『中庸或問』과 같이 원문을 그대로 두되, 수정 내용을 그 뒤에 두는 것이다. 또한 「問答節要」 앞부분의 포영의 설명에 따르면, 포운룡이 방회와 편지를 통해 이 책과 관련하여 문답한 내용을 원본에서는 3권으로 나누어 수록되어 있으나, 이번에는 한 권으로 하였다고 하였다.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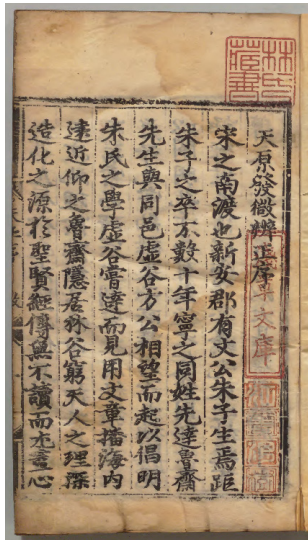
1461년본은 현재 대만 국가도서관과 국립고궁박물관, 일본 국립공문서관 등에서 확인된다. 세 곳의 판본을 비교해보면, 기본적으로 같은 판본이다. 그러나 국립고궁박물관본에는 1296년 방회의 서문과 포운룡의 서문, 포영의 「천원발미변정서」, 「변정법례」, 木記가 없다. 또한 대만 소재 두 판본 곳곳에 결락된 장차가 있거나 본문 중 비어있는 부분이 국립공문서관 소장본에는 補刻되어 있다. 따라서 같은 판본이라도 後修本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의 세 명판본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나, 조선본 및 1669년 田中清兵衛 간행 和刻本에는 1461년 포영의 발문과 각수명이 있다. 다만 조선본에는 「천원발미변정서」와 목기의 내용, 화각본에는 1296년 방회의 서문과 포운룡의 서문, 「변정법례」가 빠져 있어, 이 두 간본 역시 목차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물론 수록 내용은 전래 과정 혹은 복제한 곳의 의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를 통해 판본의 계통 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변정법례」 등 화각본에서 제외된 부분이 일본 국립공문서관본에는 보각된 부분이자, 대만 국가도서관에는 필사로 보충되어 있는 부분과 중복된다. 그러므로 화각본의 경우는 내용이 없거나 완전하지 않은 부분을 제외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조선본은 빠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후수본을 저본으로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일본 국립공문서관 소장본으로 살펴보면, 제1책 책수에 포영의 「天原發微辨正序」가 있고, 이어서 방회와 포운룡의 「天原發微序」 3편(이 중 2편은 방회의 글), 「변정법례」, 「天原發微總目」이 있다. 총목 제2장 이면에 「天順辛巳歙西/鮑氏耕讀書堂」이라는 목기가 있다. 그리고 「天原發微各類圖」가 이어지는데, 「河圖洛書」 등 역과 관련된 도설들이 수록되어 있다. 다음으로 포영의 「天原發微篇目名義」, 「문답절요」가 수록되어 있다.

매 권 권수의 첫 행에 권수제인 「天原發微卷之幾」가 있고 제2-4행에 포운룡과

27) 鮑寧, 問答節要. “原本分作三卷, 今本去繁復瑕類間, 採要義, 附入各篇條下, 復選其文理明粹, 足以啓發人者錄, 作一卷.”



〈그림 2〉 휘주본 『천원발미』
(일본 국립공문서관)

방회, 그리고 포영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다. 각 편마다 개행되어 있고, 내용은 『변정법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원문이 먼저 오고 그 주석은 개행 후 한행을 띄웠으며, 변정 내용은 해당 부분 아래에 쌍행의 세주로 제시되어 있다. 권5가 끝난 후, 曹涇의 『跋天原發微後』와 대표원의 『천원발미후서』가 있다.

판식은 사주쌍변, 유계, 반엽 18.9x13.3cm, 11행21자, 두 쌍의 상하내향흑어미, 흑구이다. 판심에는 각 수명이 敬·希·善·富가 있다.

③ 『晦菴先生語錄類要』

이 책은 勉齋學派인 葉士龍²⁸⁾을 중심으로 考亭書院과 建安書院의 주희 직계 문인들이 편찬과 간행에 관여한 것이다. 주희가 생전에 강의하면서 제자들과 주고받았던 문답을 주요 개념 48개의 항목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18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수 앞에 『語錄答問弟子姓氏』을 실어 초학자들이 공부에 활용하기 쉽게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비슷한 시기에 유통된 『주자어류』 및 『晦菴先生語錄大綱領』의 분류에 비해 전체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나, 내용은 『주자어류』에 비해 간략하다.²⁹⁾

1244년(淳祐 4) 王遂의 『朱子語錄格言序』에 의하면, 원래 이 책의 제목은 『語錄格言』이었으나, 徐幾에 의해 제목이 바뀌었다고 한다.³⁰⁾ 또한 원래 19권이었으나, 마지막 권19는 兵事와 관련된 것이라 삭제되었다.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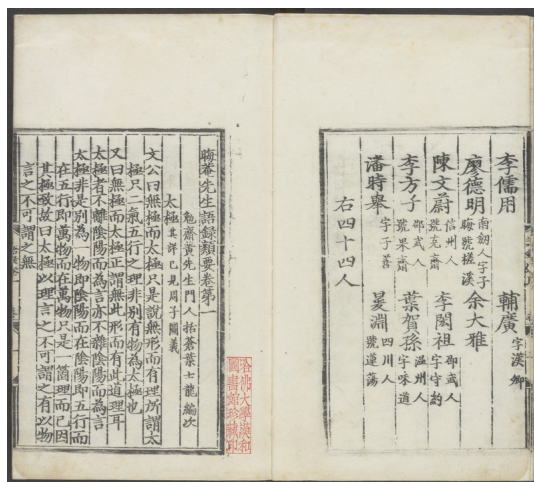
현전하는 16세기까지의 중국본에는 하버드대 옌칭도서관과 北京大學 도서관,

28) 자는 雲叟, 호는 澹軒이고 考亭書院의 堂長을 지냈다.
 29) 石立善, 2010 『『朱子語錄』と『朱子語類』の研究』, 京都大學 博士學位論文, 96-99면.
 30) 王遂, 朱子語錄格言序. “語錄格言十九卷文公遺書, 而龍泉葉君雲叟所集也. 獨其第十九卷, 以及兵事故不得備. 殿講進齋徐公其, 絕愛其簡切且門類尤便尋繹, 更爲題曰語錄類要.”
 31) 詹天祥, 語錄後序. “初題曰語錄格言凡十有九卷, 見者如獲重寶, 且刊行矣. (中略) 題曰語錄類要, 內獨省去第十九卷. 蓋不欲使學者驟言兵也. 近年書市本兵燬, 不復存.”

대만 국립고궁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1470년(성화 6)경 韓儼 각본이 있다. 1470년본은 한엄의 지어에 따르면, 그가 주희의 9세손이 보관하고 있던 이 책의 고본을 구해 교정하여 간행한 것이라고 한다. 詹天祥이 전란으로 서점에 이 책이 없어지자 자신이 갖고 있던 서기의 手校本을 교감하여 간행한³²⁾ 원판본을 토대로 간행하였다고 밝혔다.³³⁾

하버드대 소장본을 살펴보면, 책수에 朱安의 지어가 있고, 이어서 왕수의 『주자어록격언서』, 『新編晦菴先生語錄類要目錄』, 『語錄答問弟子姓氏』가 이어진다. 매 권의 권수제는 『晦菴先生語錄類要卷第幾』이고 그 다음 행에 편자인 섭사룡이 명시되어 있다. 본문은 매 편 및 매 章마다 개행되어 있는데 매 장의 첫 글자는 대두되어 있다. 권18이 끝난 후 첨천상과 한엄의 지어가 있고, 끝에 『儒士汪〈道全〉書/古歙黃〈文敬〉刊』이라는 간기가 있다.

판식은 사주쌍변, 유계, 반엽 18.3×11.7cm, 11행19자, 두 쌍의 상하내향흑어미, 흑구, 전체 크기 28.0×14.7cm이고, 판심에는 『語錄卷幾 (刻手名)』라 되어 있다. 각수명은 판심에 敬·海·太·希·善·〔得〕·達·?+贊 등이 새겨져 있다.



〈그림 3〉 휘주본 『회암선생어록류요』(하버드대 엔칭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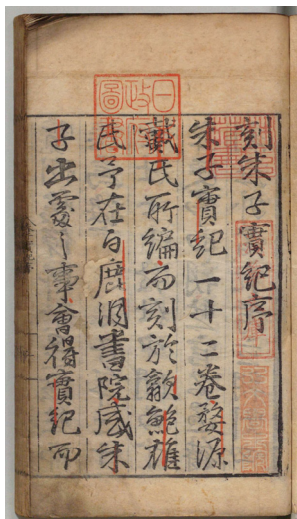
32) 詹天祥, 語錄後序 “近年書市本兵燹不復存, 天祥家藏殿講手校本, 蠹壞將不可考, 乃重校刻之.”

33) 石立善, 앞의 논문, 101면.

④ 『朱子實紀』

명대 戴銑(?-1507)³⁴⁾이 기존 주희의 연보인 『태사회국문공연보』를 증보하여 편찬한 것이다. 권1에는 주희의 道統과 世系の 源流를 보여주고 있으며, 권2-권4는 「연보」, 권5는 「행장」, 권6은 「宋史本傳」, 권7은 「廟宅」, 권8은 「朱子門人」, 권9는 「褒典」, 권10은 축사 및 제문 등을 수록한 「讚述」, 권11은 서발문과 상량문 등의 「紀題」, 권12는 詩詞를 수록한 「紀題」이다.

이와 같은 구성은 대산이 서문에서 밝힌 연보가 아닌 실기로 명명한 이유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연보는 주희의 생애 전후를 상세히 밝히기에는 정보가 부족하므로, 실기 형식으로 모든 정보를 남김없이 포괄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³⁵⁾



〈그림 4〉 휘주본 『주자실기』
(일본 국립공문서관)

이 책은 1506년(정덕 1)에 완성되었으나, 간행은 7년 뒤인 1513년에 이루어졌다. 다른 서적과는 달리, 각수명이나 간기가 있지는 않으나, 李夢陽과 汪愈의 「刻朱子實紀後序」를 통해 휘주 흙현에서 鮑雄에 의해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³⁶⁾

현재 명판본은 북경대, 일본 궁내청 서릉부와 국립공문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데, 서릉부분은 권10의 제30-31장이 보각되어 있는 후수본이다. 국립공문서관본을 통해 이 책을 살펴보면, 제1책 책수에 이몽양이 1513년에 작성한 「刻朱子實紀序」가 있고, 이어서 대산의 「주자실기서」가 있다. 다음으로 「朱文公先生年譜序」, 「文公先生年譜序」, 「文公先生年譜重刊序」, 「太師徽國文公像」이 이어지는데, 「주문공선생연보서」

34) 무원 출신으로 자는 寶之이다.

35) 戴銑, 朱子實紀序. “朱子實紀紀朱子之始末, 與夫今昔尊崇之實也. 舊名年譜, 今更曰實紀, 何也? 謂之年譜, 則紹乎前, 彰乎後者, 不足以該, 必曰實紀, 然後并包而無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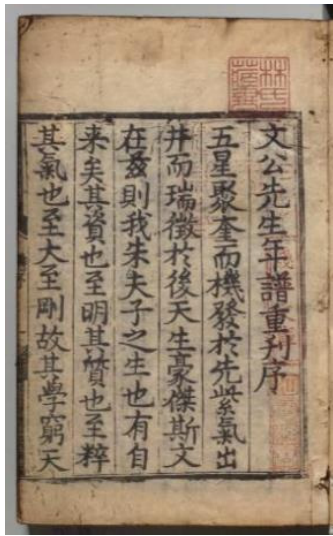
36) 李夢陽, 刻朱子實紀後序, “朱子實紀一十二卷, 婺源戴氏所編, 而刻於歙鮑雄氏.”; 汪愈, 刻朱子實紀後序, “今正德癸酉, 歙鮑雄以道氏始板行焉.”

외에는 모두 『태사회국문공연보』에 수록된 내용으로, 초상은 『태사회국문공연보』와 동일하다. 이후에는 「朱子實紀凡例」, 「朱子實紀目錄」이 이어진다.

권10의 말미에 수록된 「紫陽書院落成率諸生釋菜告文」의 제목 밑에 음각으로 「續集」이라 새겨져 있다. 권12가 끝나고 왕유의 「刻朱子實紀後序」가 이어진다. 판식은 사주단변, 유계, 10행20자, 上下向白魚尾이다.

조선본과 비교해보면, 행자수까지 동일하나, 이몽양의 서문을 비롯하여 간혹 차이를 보이는 곳이 있다. 그리고 명판본에 수록된 내용이 조선본에는 없거나, 일부 주석 내용 등 텍스트 상에도 미세한 차이가 있다.

⑤ 『太師徽國文公年譜』



〈그림 5〉 조선본
『태사회국문공연보』
(일본 국립공문서관)

이 책은 명대에 편찬된 주희의 연보로, 출생하여 사망할 때까지 개인적인 행적과 관력 등에 대해 연월별로 상세히 기록한 것이다. 부록으로는 행장을 비롯한 관련 글과 기록들을 모아 두었다. 주희가 죽은 후, 제자들에 의해 어록과 행적 등이 정리되기 시작하였는데, 연보는 원대까지의 서적이 현전하지 않는다.

현전하는 명판본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복각본인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본으로 살펴보면, 제1책 책수에 수록된 孫原貞의 「文公先生年譜重刊序」를 통해 1431년(宣德 6) 섭공회가 간행한 판본을 저본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손원정의 서문 제목에서 ‘重刊’이라 하고 있어, 1431년본은 초간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책에 함께 수록된

汪仲魯의 「文公年譜序」을 통해 1394년(홍무 27)에 朱境이 간행을 추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³⁷⁾ 그러므로 처음 간행된 것은 1394년인 것으로 생각된다.

37) 汪仲魯, 文公年譜序. “洪武二十七年甲戌秋, 我文公闕里掌祠事, 朱境以書告曰, 文公年譜謀

1431년본에 수록된 서문과 지어를 종합해보면, 이 판본은 당시 福建省 尤溪縣의 縣丞으로 부임한 섭공희가 주희의 사당이 오래되어 중수하면서, 이 책의 판본이 글자를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마멸되어 舊本을 구해 다시 간행한 것이다.³⁸⁾ 이때의 구분이라는 것은 朱湛의 지어에 의하면 당시 安徽省과 복건성에 유통되고 있던 판본이다.³⁹⁾ 또한 당시 전하고 있던 行狀, 褒典, 記文을 모아 따로 부록으로 두었고, 孫叔拱·程思溫·葉華가 모든 내용에 대해 교감하여 오류를 바로 잡았다.⁴⁰⁾ 그리고 家廟에 전하고 있던 61세 당시의 주희의 초상을 모사하여 권수 앞에 두었다. 이렇게 하여 완성된 책이 각수를 통해 판각되었는데, 간행에는 汪華·方尙智·汪叔輝 등이 관여하였다.

조선본 제1책에 손원정의 「문공선생년보중간서」를 비롯하여, 왕중노의 「문공연보서」, 「태사회국문공진상」 및 섭공희의 지, 「贊」, 「文公世系之圖」, 「文公塋墓形勢圖」 및 주담의 지어가 차례로 수록되어 있다. 본문은 주희가 탄생한 1130년(建炎 4) 9월부터 사망한 후 齊國公으로 봉해지는 1362년(지정 22)까지 시기별로 주희의 행적이 나열되어 있다. 최소 항목은 월 단위로, 세부내용은 세주로 서술되어 있다. 매 항목마다 개행되어 있다. 그리고 제2책은 「太師徽國文公年譜附錄」으로, 「행장」·「誥」·「記」가 수록되어 있다. 제1책 책말에는 「歙西仇村黃氏刊」이라는 간기가 있다.

2) 간행 주체별 출판문화사적 검토

앞서 살펴본 6건의 휘주본의 간행 정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鈐諸梓, (中略).

- 38) 孫原貞, 文公先生年譜重刊序. “曾闕里廟祀攸, 宜括蒼葉公公回來爲邑丞, 旣新厥廟復, 以年譜舊刊本板, 文字磨滅漫, 不可瓣謀欲重刊, 爰得求舊本.”
- 39) 朱湛, 識. “宣德辛亥秋, 栝蒼葉侯公回謁祠間, 館而有感, 遂購徽閩之本, (下略)”
- 40) 朱湛, 識. “若行狀褒典記文, 附於年譜之後者, 與邑之儒士孫叔拱, 悉加校讎, 補其遺闕, 正其訛繆, 命工鈐梓.”

〈표 1〉 조선 전기 간행 휘주본의 간행 정보

번호	서명	간행시기	간행주체	간기/각수명	현소장처
1	瀛奎律髓	1467년 (成化 3)	官版 (龍遵)	成化三年仲春吉日紫陽書院刊行/希, 海, 敬, 付, 達, 敏, 禮, 以 등	대만 국가도서관
2	天原發微	[1461년] (天順 5)	坊刻 (鮑寧)	天順辛巳歙西鮑氏耕讀書堂/仇川黃文善, 文敬, 文希, 永富刊	일본 국립공문서관, 대만 국가도서관
3	心經附註	1492년 (弘治 5)	私版 (程敏政)	없음/刻手 仇以茂, 以才, 以興, 以忠, 以淳, 黃文□, 文通, 永昇, 永旻	중국 湖南圖書館 등
4	晦菴先生語錄類要	1470跋 (成化 6)	官版 (韓儼)	古歙黃文敬刊/敬, 海, 希, 善, 暹, 太, 瀆 등	北京大, 清華大, 復旦大, 하버드대 연칭도서관
5	朱子實紀	1513년 (正德 8)	私版 (鮑雄)	없음	北京大, 대만 국 가도서관, 일본 궁 내청서릉부, 국립 공문서관 등
6	太師徽國文公年譜	1431序 (宣德 6)	官版 (葉公回)	歙西仇村黃氏刊/없음	미상

6건에는 서발문뿐만 아니라 원간기 및 각수명이 남아 있어, 저본인 휘주본의 성격에 대해 파악해볼 수 있다. 가장 많이 보이는 흡현은 명대 휘주 중에서도 가장 출판이 활발했던 곳이다.⁴¹⁾

간행 시기는 『주자실기』를 제외하면 모두 15세기이다. 휘주 지역에서 출판이 가장 크게 번성한 시기는 명말인 만력 연간부터 崇禎 연간(1628-1644)⁴²⁾이다. 그리고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조선에서는 늦어도 16세기 중반에는 간행되었기 때문에 6건은 중국에서 아직 출판이 완전히 활성화되지 않은 시기에 유통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5세기 중반에 휘주에서 상업과 외지 진출이 호황을 이루었던 상황과 관련있을 것으로 생각된다.⁴³⁾

41) 劉尙恒, 앞의 책, 285면.

42) 翟屯建, 앞의 논문, 139면.

간행 주체는 관청과 개인, 그리고 상업 출판까지 비교적 다양하게 보인다. 이하에서는 6건을 주체별로 나누어 당시 휘주의 전반적인 출판문화와 함께 그 성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官版

우계현 현승 섭공회가 간행한 『태사회국문공연보』와 무원현령 한엄이 간행한 『회암선생어록류요』, 그리고 휘주부에서 자양서원을 통해 간행한 『영규율수』⁴⁴⁾가 해당된다. 휘주의 서원으로 자양서원과 무원의 屏山書院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이들 서원은 원대에 설립되었으나, 명대에도 존속하고 있었다. 특히 자양서원은 당시 출판으로도 널리 알려진 곳인데, 관각으로 간행된 서적 중 1288년(지원 25) 『周易集義』, 1297년(원정 3) 『中庸講義』은 자양서원에서 간행된 것을 중간한 것이기도 하다.

16세기 중반 이후 朱弘祖가 명대 중앙 및 각 지방 관서 소장 서적을 기록한 목록인 『古今書刻』 上篇에 수록된 南直隸에는 6건 중 『천원발미』·『영규율수』·『문공연보(태사회국문공연보)』·『회암어록(회암선생어록류요)』를 포함한 31건이 확인된다. 다만, 두 지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상편에는 서적의 세부적인 정보가 없고, 사관인 『천원발미』를 기재한 것과 같이 오류가 있기도 하다.⁴⁵⁾

명대 휘주 관관은 기록 및 현전본을 통해 휘주부와 부속 현에서 간행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휘주부 간본은 『영규율수』 외에도 1369년(홍무 2) 宋羅愿의 『鄂州小集』 등 명말까지 21건이 확인된다.⁴⁶⁾ 또한 부속 현에서 간행된 것

43) 조영현, 2021 『대운하 시대』, 민음사, 118-119면.

44) 葉德輝(박철상 옮김), 2011 『서림청화: 중국을 이끈 책의 문화사』, 푸른역사, 252면. 다만 이 책에는 자양서원 간행 『영규율수』도 방각본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규율수』에 수록된 실질적인 간행 주체인 용준은 간행 당시 휘주 부지에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간행된 곳은 자양서원이나 관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仇氏 집단에 의해 간행되었으나, 무원현령 한엄이 주체자인 『회암선생어록류요』 역시 井上進의 지적과 같이 관관으로 봐야할 것이다(井上進, 2011 앞의 책, 68면). 劉尙恒 역시 이 책을 관관으로 보았다.

45) 劉尙恒, 앞의 책, 41면.

46) 위의 책, 42면.

은 무원현에서 간행된 『회암선생어록류요』를 포함하여 1493년(홍치 6) 휴녕현에서 간행한 『春秋屬辭』 등 17건이 있다.⁴⁷⁾ 그리고 『태사회국문공연보』는 엄밀히 말해 휘주에서 간행된 것은 아니나, 관판이라 할 수 있다.

명대 휘주에서 간행된 관판은 주로 관리가 자신 혹은 교유 관계에 있었던 이들의 편저서를 간행하거나, 『春秋傳』과 『音點春秋左傳』 등과 같은 경서의 주해서 혹은 성리서 등 이곳 출신 학자의 성리학서, 그리고 府縣志와 중국에서 중시되고 있는 출신 문인의 편저서가 있었다.⁴⁸⁾ 이로 미루어 보면, 『태사회국문공연보』와 『회암선생어록류요』는 주희와 관련된 서적이고, 『영규율수』는 이곳 출신 방희의 편저서로, 당시 중국에서 율시 학습에 크게 참고되었던 서적이다. 따라서 이 세 서적은 당시 휘주 관판의 경향에 부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私版

사판은 개인 혹은 家塾 등에서 간행된 것으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 방각본과 구별된다. 남송대 주희의 저술을 중심으로 판각이 이루어지던 경향이 주자학이 관학이 되는 원대에도 이어져 학자들의 저술 활동은 물론, 서원을 열어 교육 또한 활발히 이루어졌다.⁴⁹⁾ 원대 휘주 간본으로 확인된 서적 중 관판 19건, 사판 42건이며, 종류도 더 다양하다.⁵⁰⁾

명대 휘주에서는 종수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판이 가장 활발히 간행된 지역이다. 특히 가정 연간부터 만력 연간에 집중되어 있는데, 상인의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이기도 하다.⁵¹⁾

또한 이 지역은 경제적 풍요 속에서 정주학과 의학 등이 발달함에 따라 개인의 서적 편찬과 간행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주로 간행된 것은 선인 및 鄉賢을 비롯하여 자신의 편저서이다.⁵²⁾ 여기에는 『심경부주』와 『주자실기』가 해당되는

47) 劉尙恒, 앞의 책, 43면.

48) 위의 책, 44면.

49) 翟屯建, 앞의 논문, 137면.

50) 劉尙恒, 앞의 책, 34면.

51) 위의 책, 60면.

52) 위의 책, 46-47면.

데, 『심경부주』는 정민정이 직접 간행했다는 점에서 이와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정민정은 이 책 외에도 역시 자신이 편찬한 『程氏貽范集』 등을 간행하였다. 다만, 이 책에는 <표 1>과 같이 각수명이 확인되므로, 정민정은 각수를 고용하여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방각

葉德輝(1864-1927)의 『書林清和』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여기에는 경독서당에서 간행된 『천원발미』가 해당된다. 경독서당은 당시 흡현에서 유명한 서점이었다.⁵³⁾

휘주에서는 명대부터 전문적으로 출판업에 종사하는 각수들이 급증하였는데, 특히 汪·黃·仇·吳氏 등이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흡현의 황씨는 명청시대 휘주 각수 420명 중 329인으로 압도적으로 많다.⁵⁴⁾ 황씨가 간각한 서적 중 가장 오래된 것이 정통 연간에 『纂圖互注荀子』를 간행한 黃文顯이므로, 이들 황씨가 간각을 시작한 것은 15세기 중반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⁵⁵⁾ 이들은 청대까지 서적의 판각을 대대로 가업으로 전승하였는데, 정밀한 판각 기술을 독점하여 타인에게 전수하지 않았다.⁵⁶⁾ 劉尙恒은 관련 기록과 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徽州刻工刻書輯目』을 제시하였는데, 명청대 주요 각수들이 판각한 서적은 373종이고, 그 중 황씨는 367종, 구씨는 25종으로, 황씨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⁵⁷⁾ 이들이 간행한 서적으로는 이 외에도 『纂圖互注荀子』·『文苑英華』·『楚辭集注』·『梁書』·『後漢書』·『韓詩外傳』 등이 있다.

6건 중 황씨와 구씨가 판각한 서적은 <표 1>과 같이 『주자실기』를 제외한 5건이다. 『영규율수』는 다른 서적과 달리 직접적으로 각수명이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판심에 새겨진 각수명 중 확인이 가능한 ‘希·敬·達’은 각각 흡현 황씨 22대인 黃文希(1440-1526)·黃文敬(1439-1507)·黃文達(1452-1483)인 것으로 보인다.

『심경부주』의 경우, 각수 명단에 보이는 황씨 중 생몰년 확인이 가능한 黃永

53) 翟屯建, 앞의 논문, 139면.

54) 劉尙恒, 앞의 책, 137면.

55) 大木康, 앞의 책, 94면.

56) 翟屯建, 앞의 논문, 139·154면.

57) 劉尙恒, 앞의 책, 301-342면.

昇(1456-1521)과 黃永旻(1456-1521)은 23대이다.⁵⁸⁾ 또한 함께 참여한 구씨 각수는 생몰년이 확인되지 않으나, 다른 서적을 통해 15세기 말부터 16세기 전반까지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1498년(홍치 11) 간행 『赤壁賦』와 1518년(정덕 13) 간행 『汪氏瀟源錄』 등과 같이 단독으로 참여한 것도 있으나, 6건의 서적과 같이 대부분 황씨 집단과 공동으로 작업하였다.

그런데 이들 각수명은 방각본뿐만 아니라 관판과 사판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태사회국문공연보』와 같이 휘주 지역을 벗어난 경우도 있다. 1830년(道光 10)에 간행된 『黃氏宗譜』에는 이들이 휘주를 비롯한 강남 지역은 물론, 북경·陝西·강서 등으로 이주한 사실이 나와 있어, 이들의 활동 범위는 휘주에 국한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주한 지역은 휘주 상인들의 중요한 거점이기도 하므로, 이들의 이동과 상인들의 활동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⁵⁹⁾



〈그림 6〉 조선본 및 휘주본에서 확인되는 휘주의 각수명
(일본 국립공문서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하버드대 연칭도서관)

58) 劉尙恒, 앞의 책, 138-139면.

59) 大木康, 앞의 책, 101면.

3. 조선에서의 수용 양상

이상의 내용을 통해 조선에서 간행된 휘주본은 당시 휘주의 출판 경향인 성리서 혹은 휘주 출신 인물의 편저서이며, 휘주의 대표적인 각수 집단이 판각한 것이라는 점에서 전반적인 출판문화 경향에 부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2〉 휘주본 6건에 대한 조선 전기 간본

번호	서명	권수	편저자	판종	간행시기	간행지	현소장처
1	瀛奎律髓	49卷	方回(元)撰	목판본	1475년跋	靈光	고려대, 일본 국립공문서관, 成篋堂文庫, 대만 고궁박물관 등
					[16세기 후반]	[영광]	고려대, 성암고서박물관 등
				병자자본	[1516년 이후]	교서관	계명대, 고려대,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각, 일본 蓬左文庫, 東京大 등
2	心經附註	4卷	眞德秀(宋)撰 程敏政(明)校	목판본	[1523년 이전]	光州	계명대, 연세대, 일본 국립공문서관 등
					[1564년]	平壤	고려대
					[1564년]	海州	미상(『退溪集』)
					[1570년]	慶州	미상(『退溪集』)
					[1585년 이전]	南原	미상(『攷事撮要』수록)
				갑인자본	1573년	교서관	고려대, 성암고서박물관, 일본 궁내청 서릉부 등
목판본 (갑인자복각본)	1573년	교서관	고려대, 규장각, 성암고서박물관, 일본 宮内廳 書陵部 등				
3	天原發微	5卷 首1卷	鮑雲龍(宋)撰 方回(元)校 鮑寧(明)辨正	을해자혼 임보자본	[16세기]	교서관	고려대, 계명대
					[1553년]	교서관	계명대, 규장각, 성대존경각, 일본 국립공문서관, 蓬左文庫
4	晦菴先生語錄類要	18卷	葉士龍(宋)編	목판본	[1567년 이전]	潭陽	고려대

5	朱子實紀	12권	載誥(明)編	목판본	(16세기 중반)	光州	규장각, 한국국학진흥원, 일본 尊經閣文庫, 松浦史料博物館
6	太師徽國文公年譜	不分卷附1卷	葉公回(明)等校	목판본	(1566년 이전)	梁山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1566년	양산	경북대, 고려대
					1568년	양산	일본 국립공문서관
					(1576년)	[양산]	성대 존경각 등

6건의 휘주본은 조선에 유입된 후, 교서관 혹은 지방 관청에서 간행되었다. 비록 6건 모두 유입 및 간행 경위, 수용자 등이 알려져 있지 않으나, 간행 주체 및 지역을 통해 조선에서의 전반적인 간행 양상에 대해 파악해 볼 수 있다.

『천원발미』를 제외하면 모두 지방 관청에서 먼저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영규율수』·『심경부주』와 같이 이후 교서관에서 금속활자로 다시 간행된 경우가 있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밝힌 명종대 이후 서적의 간행과 유통이 중앙 정부 중심이 아닌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지방 관청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⁶⁰⁾

간행 지역을 보면, 『심경부주』는 16세기 전반에 걸쳐 교서관이 있는 한양 외에도 전라도, 경상도, 황해도, 평안도에서 간행됨으로써, 횡수뿐만 아니라 간행 지역이 비교적 많다. 이에 비해 『영규율수』 및 『태사회국문공연보』는 여러 차례 간행되었지만 지역은 동일하며, 그리고 『회암선생어록류요』 및 『주자실기』는 횡수와 지역을 모두 고려해도 비교적 널리 유통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사부분류를 통해 내용을 보면, 사부 전기류에 『주자실기』와 『태사회국문공연보』, 자부 유가류에 『심경부주』와 『회암선생어록류요』, 자부 술수류에 『천원발미』, 집부 총집류에 『영규율수』인데, 주희와 관련된 저술이 4건이다. 황씨를 비롯한 각수들이 명대 휘주에서 판각한 것으로 확인되는 330여 종 중 정덕 연간까지는 20여 종, 가정 연간까지는 70여 종이 해당된다.⁶¹⁾ 이 중 절반 이상이 문학서이

60) 우정임, 2008 『退溪 李滉과 그의 門徒들의 서적 간행과 書院의 기능』 『지역과 역사』 22, 217면.

61) 劉尙恒, 앞의 책, 301-342면을 토대로 집계한 것이다. 다만, 여기에는 『영규율수』 『주자실

고, 족보 및 地志를 비롯한 史部 서적도 다수 보인다. 이에 비해 성리서는 비중이 작은 편인데 대상 서적 외에도 『文公家禮儀節』 등이 있다. 이로 볼 때, 당시 휘주본 성리서 중 상당부분이 조선에서 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하에서는 입수자 및 경위가 밝혀져 있는 『영규율수』와 수용 사례가 이항 및 문인들이 집중적으로 보이는 『천원발미』 및 성리서 4건으로 각각 나누어 조선에 서의 수용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15세기 『영규율수』의 유입과 간행

『영규율수』는 1475년에 간행되기 이전에 이미 수용되고 있었다. 徐居正(1420-1488)의 『四佳集』에 수록된 시 중 그가 이 책을 읽었음을 언급한 부분이 있다.⁶²⁾ 또한 성현은 『風騷軌範序』에서 홍문관 재직 당시 고시를 학습하기 어려운 환경을 비판하자 동료들 역시 율시에는 이 책이 있고, 절구에는 『聯珠詩格』이 있으나 고시에 대한 책은 없으며 동감했다고 언급하고 있다.⁶³⁾ 그리고 『燕山君日記』 1504년(연산군 10) 12월 23일 기록에서 연산군은 이 책의 제목이 唐宋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냐며 언급하였다.⁶⁴⁾

연산군은 1505년 5월 19일에 이 책을 간행할 것을 교서관에 명한 기록이 있다.⁶⁵⁾ 그러나 이후 간행되었다는 기록이나 현전본으로 확인되는 바가 없다. 연

기』 『태사회국문공연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영규율수』와 『주자실기』만 포함하여 합산하였다.

62) 『四佳集』 권40, 病餘小醉戲作. “(中略) 陸放翁嘗言, 子自十七八學詩, 今六十年得萬篇. 元瀛奎律髓梅花下小飲註.”; 『四佳集』 권52, 見瀛奎律髓, “集之意頗艱險, 讀所集之詩, 與唐詩鼓吹三體詩不同, 其評論批點, 不及須溪, 遠矣. 嘗看圓珠處, 有苔色照人衣者, 有雨裏得窓光者, 極口稱譽, 是不知何等語耶. 仍吟數絕云.. 作詩差易揀詩難, 分別雌黃豈一端. 律髓評論批點在, 何人具眼細尋看.”

63) 『風騷軌範』, 風騷軌範序. “(中略) 余嘗在玉堂, 極論斯弊, 同列亦以爲然曰, 律詩則有瀛奎律髓, 絕句則有聯珠詩格, 而獨無古體所衰之集, 其可乎?”

64) 『燕山君日記』 권56, 연산군 10년 12월 己卯. “又傳曰, 詩必和暢然後, 可觀也. 選古詩和暢者, 依杜詩, 分類以入. 且瀛奎律髓題名之意, 非指謂唐宋乎? 承旨權鈞姜渾啓曰, 果如上教, 瀛謂唐也, 奎謂宋也.”

65) 『燕山君日記』 권58, 연산군 11년 5월 癸卯. “傳曰, 唐詩鼓吹·續鼓吹三體詩·唐音詩·詩林廣記·唐賢詩·宋賢詩·瀛奎律髓·元詩體要, 令校書館印進.”

산군의 명으로는 간행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⁶⁶⁾

조선본에는 책말에 이 책을 간행한 尹孝孫(1431-1503)이 1475년(성종 6)에 작성한 발문이 남아 있어 입수부터 간행되기까지의 경위를 비교적 자세히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전라도 관찰사였던 李克均(1437-1504)이 1472년 천추사로 중국에 다녀오면서 이 책을 구해왔는데, 韓明澮(1415-1487)가 간행을 요청하여 전주부윤이었던 윤효손에게 건넸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간행 중이던 1474년에 관찰사가 芮承錫(1406-1476)으로 바뀌었으나, 계속 진행하여 1475년에 완료하였다.⁶⁷⁾ 그런데 『고사촬요』 1568년(선조 1) 을해자본부터 이 책이 전라도 영광에서 확인된다. 이에 따라 전주에서 간행된 후 책판은 영광에서 보관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⁶⁸⁾



〈그림 7〉 휘주본 및 조선본 『瀛奎律髓』의 권1(대만 국가도서관, 일본 국립공문서관)

이 목판본에는 저본의 목기가 남아 있어, 저본이 1467년 휘주 자양서원 간본

66) 백승호, 앞의 논문, 102면.

67) 尹孝孫, 跋. “歲甲午僕謬承天恩, 叨守完山, 時監司李相克均, 囑余以瀛奎律髓曰, 此詩乃吾中朝所得, 而銓諸梓, 上黨韓相公志也. (中略) 卽鳩工繡梓, 未幾, 李相承召, 今監司芮相承錫繼志成之, 閱數月而功訖.”

68) 정순우·윤병태 편, 1995 『한국의 책판목록』上, 보경문화사, 23면.

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대만 국가도서관 소장본과 비교해보니, 조선본은 세부적인 판식과 판심의 각수명까지 그대로 옮긴 복각본임을 알 수 있다. 이인영의 『淸芬室書目』에 따르면, 이 판본은 선조 연간(1568-1608)에 복각되었다고 한다. 그는 두 판본의 판식에는 차이가 없으나, 종이의 재질로 구분하였다.⁶⁹⁾ 그리고 藤本幸夫는 이 복각본이 고려대 및 성암고서박물관에 현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⁷⁰⁾

이 책은 병자자본으로도 간행된다. 병자자본에는 윤효손의 발문이 있으므로 목판본을 중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간행 시기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병자자가 주도된 시기가 1516년이므로 그 이후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權櫟(1478-1548)의 연보에는 그가 1519년 三陟府使 재직 중 이 책을 반사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⁷¹⁾ 시기적으로 병자자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에는 沈彦光(1487-1540)의 장서인이 있는데, 지어 및 발문 부분에 사용된 갑인자에 섞인 補字가 1515년(중종 10)에 제작되었다는 점으로 중종 연간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견해도 있다.⁷²⁾

이상의 내용을 통해 사행을 통해 유입된 자양서원본 『영규율수』는 적어도 16세기까지 꾸준히 읽혔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이 간행된 성종대에는 사장을 중시하는 경향이 생기면서 관련 서적들이 간행되었는데, 이 책 역시 이에 부합하며, 당송대의 뛰어난 시를 모아놓은 이 책은 학시서 혹은 전고사전으로 활용되었다.⁷³⁾

2) 16세기 성리서의 간행과 유통⁷⁴⁾

16세기는 지방 관아를 중심으로 서적이 활발히 간행되는 가운데, 개인은 인맥

69) 李仁榮, 1993 『淸芬室書目』, 보고서, 240면.

70) 藤本幸夫, 2006 『日本現存朝鮮本研究-集部』, 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1면.

71) 유승현, 민관동, 2019 『16세기 관료 權櫟의 朝鮮·明刊本 수집 경로 탐색: 충재박물관 소장 장서를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 54, 235면.

72) 천혜봉, 2003 『日本 蓬左文庫 韓國典籍』, 지식산업사, 217면.

73) 김상일, 2000 『『영규율수』와 조선시대 수용의 의미』 『한국문학연구』 23, 137-138면.

74) 『천원발미』는 성리서 범주에 해당되지 않으나, 이황은 주희의 『周易傳義』를 이해하기 위해 수용되었으므로 여기에서는 함께 다루기로 한다.

을 통해 서적을 입수하였고, 서원이 건립되면서 증여·구입·자체 간행 등의 방식으로 서적을 구비하는 등, 이전 시기에 비해 서적이 보다 널리 유통되었다. 전남 지방의 경우, 명종대부터 출판량이 급증하였고, 전반적으로 성리서의 간행이 두드러진다.⁷⁵⁾ 여기에는 이황과 문인, 그리고 교유관계의 인물들의 활발한 간행 활동 또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⁷⁶⁾

이황은 규모는 알 수 없으나 생전에 많은 서적을 소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⁷⁷⁾ 그러나 자신의 편저서를 비롯하여 직접 간행을 한 책은 확인되지 않는다. 주로 지방관을 역임하는 문인들이 실질적인 간행을 맡았다. 이황이 직접 간행을 부탁하지 않더라도, 문인들은 간행하고자 하는 서적이 있으면 먼저 보이면서 의견을 구하거나 교정을 요청하였다. 특히 黃俊良(1517-1563)은 간행하기 전에 스승에게 검증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하였다.⁷⁸⁾

문인 중 가장 활발히 서적을 간행한 이는 李楨(1512-1571)이다. 그는 이후에 언급하겠지만, 이황에게 『주자실기』를 빌려준 李湛(1510-1574)의 아들이기도 하다. 그는 1537년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사행을 다녀왔고, 榮川·선산·청주·경주·순천에서 관직 생활을 하면서 서적을 간행하였다. 그가 지방관을 역임하는 동안 간행 서적의 종수는 선행 연구에서 기록을 통해 파악한 것만 23종이다.⁷⁹⁾

또한 성리서가 주를 이루는데, 송대부터 도통을 밝힌 언행록류와 도학풍의 시문류, 그리고 명대 학자들의 언행록류, 그리고 조선의 도통을 밝힌 언행록류 서적이다.⁸⁰⁾ 이들 서적을 통해 이황 및 문인들은 주희의 학문과 도통 인식을 이해

75) 안현주, 2010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전 전라도의 서적출판에 관한 고찰: (1) 全南地域을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46, 189-191면.

76) 관련 연구로는 배현숙, 2003 『柳希春이 版刻을 主導한 書籍에 관한 研究』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3); 송재용, 2014 『『미암일기』에 나타난 서적 및 출판 관련 사항 일고찰』 『동아시아고대학』 36; 우정임, 2010 『『眉巖日記』를 통해 봄 柳希春의 서적교류와 地方板本の 유통』 『지역과 역사』 26; 우정임, 2016 『龜巖 李楨의 서적편찬과 간행이 道統 확립에 미친 영향』 『지역과 역사』 38 등이 있다.

77) 배현숙, 1994 『退溪 藏書의 集散考: 개인문고의 서원문고화의 일례로서』 『서지학연구』 10, 148면.

78) 우정임, 2008 앞의 논문, 231면.

79) 위의 논문, 229면.

80) 우정임, 2016 앞의 논문, 279-300면.

하고, 조선에서의 도통을 확립하는데 기여하였다.⁸¹⁾ 대상 서적 6건 중 4건이 성리서로, 도통을 밝힌 서적이라 할 수 있다.

〈표 3〉 이황 및 문인들의 수용 양상

初刊	重刊 ⁸²⁾	서명	입수	간행 관여 ⁸³⁾	소장	수용 ⁸⁴⁾
교서관	교서관	천원발미	미상	미상	金榮祖, 朴啓賢 · 李滉 · 李弘有	
지방 관청	-	회암선생 어록류요	미상	미상	金富儀, 柳希春, 〔崔應龍〕	金富倫, 李珥
		주자실기	〔李湛〕	李滉, 李楨	柳希春, 金富弼, 金誠一, 鄭述, 沈 義謙, 陶山書院	
	지방 관청	태사회국 문공연보	미상	李楨(初刊), 李 滉, 裴三益(수정 후 간행), 柳希 春, 朴素立(重刊)	〔姜士尙, 郭燾, 李慶祐, 鄭世弼〕, 裴三益, 李文樾, 趙穆	
	교서관	심경부주	〔金安國〕	〔金安國(초간)], 柳希春(중간)	琴應爽, 裴三益, 李滉, 陶山書院	趙穆, 黃俊良

5건의 서적의 수용 양상에 대해 이황을 기준으로 보면, 그가 간행에 참여한 것이 『태사회국문공연보』와 『주자실기』 2건이다. 간행에 관여하지 않았으나, 문인들의 수용과 중간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 『심경부주』, 그가 간행에 관여했는지 알 수 없다 해도 지방관으로 있던 문인이 인쇄하여 다른 문인에게 보내주는 경우를 통해 소장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거나, 『천원발미』와 같이 간행에 관여하지 않았어도 소장하면서 내용을 수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하에서는 각 경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81) 우정임, 2016 앞의 논문, 271면.

82) 중간본은 초간본과는 다른 계통의 간본이다. 따라서 초간본의 後印 혹은 후수본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중간본의 복각본 또한 포함시키지 않았다.

83) 직접 간행에 관여한 인물뿐만 아니라 간행을 요청하거나 교정 및 발문 작성 등 간행 이전의 과정에 참여한 인물도 포함하였다.

84) 기록 혹은 저술을 통해 수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경우로, 소장이 확인된 인물은 재차 포함시키지 않았다.

(1) 간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① 『태사회국문공연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6세기까지 간행된 조선본 『태사회국문공연보』의 현전본은 4종이 전한다. 4종의 판본을 대조해보면, 표면적으로는 유사하나 초간본을 토대로 수정 사항이 조금씩 반영되어 있다. 간행과 교정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이황과 裋三益(1534-1588)의 서간 및 문집 등의 기록에는 현전본에 나타나는 수정 과정이 자세히 나타나 있다. 이를 시기 순으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 『태사회국문공연보』의 간행 및 교정 과정에 대한 기록

시기	내용	출처
(1566년 이전)	李楨에 보낸 답장에 新舊 『연보』 2건과 『역학계몽전의』 1책을 이미 받아 보았다고 함.	『退溪集』續集 卷4『答李剛而』
(1566년 이전)	李楨에게 보낸 답장에 전에 보내준 『연보』의 교정이 이미 끝났으며, 배삼익에게 교감을 부탁하겠다고 함	『退溪集』續集 卷4『答李剛而』
1566년 1월	-밀양부 교수 배삼익, 이황에게 편지로 『주자연보』의 改刊을 상의하자, 이황은 이전 교정에서 놓쳐 오자가 많으니 배삼익에게 세밀하게 교정하여 다시 간행했으면 한다고 함. -이후 새로운 책을 보내자, 이전보다 나아졌으나, 다시 교정했으면 한다고 함	『臨淵齋集』 卷5『附錄』
1566년 (1월 이후)	柳仲郢과 『성리서절요』의 주석 표기 방식을 의논하면서, 양산본의 두주 방식을 예를 들음	『退溪集』 卷15『答柳彥遇』
여름	배삼익이 趙穆에게 책을 보냄	경북대본 목서
9월 14일	李文樾, 경상도관찰사 姜士尙에게 받음	『默齋日記』
가을	배삼익, 밀양부사 李慶祐에게 받음	고려대본 목서
1568년 3월	밀양교관 배삼익, 이황에게 『주자연보』 개간본을 보냄	『臨淵齋集』
(1568년 3월)	배삼익에게 책을 보내주어 고맙다고 하면서, 『문공형묘형세도』의 오자를 지적함.(‘泰元’→‘蔡元’)	『退溪集』續集 卷5『答裴汝友』
3월 25일	울산군수 郭燾이 유희춘에게 양산본을 보냄	『眉巖日記』
1570년 7월 5일	군수 鄭世弼이 『주자연보』 2책을 보냄	『眉巖日記』
1576년 5월	유희춘, 발문 작성	
1576년 6월 22일	유희춘, 교정본 1벌을 경상감사 朴素立에게 보내 개정하게 함	『眉巖日記』

먼저 『임연재집』 부록에 수록된 행장에 따르면, 배삼익은 1565년 9월에 밀양부 교수에 제수된다. 이듬해 1월에 배삼익은 편지를 통해 이황에게 이 책의 간행에 대해 의논한다. 이때 이황은 이 책에 오류가 많은데, 자신은 눈이 어두워 지나친 부분이 많다면서 배삼익에게 교정을 부탁하였다. 이는 이정에게 쓴 이황의 답신에서도 확인된다. 여기에서 이황은 이전에 보내준 『연보』의 교정이 끝났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전의 편지에서 이황은 이 책을 신본과 구분 2건이라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구분은 초간본, 신본은 배삼익이 교정한 양산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황은 1566년 유희춘에게 쓴 편지에서 근년 양산에서 이 책이 간행되었는데, 모두 개정되지 않았어도 이전보다 좋아졌다며 만족하였다. 이는 柳仲郢(1515-1573)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확인된다. 이 편지에는 이뿐만 아니라 판목이 어떻게 수정되었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해당 내용은 류중영이 정주목사 재임 중 『朱子書節要』 간행을 추진하면서 판목의 수정 방식을 상의하는 내용으로 파악된다. 류중영은 아마도 이전 편지에서 柳成龍(1542-1607)의 의견을 들어 목판의 윗부분에 공간이 없다면 어려울 것이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황은 양산본의 경우를 들어 배삼익이 처음에는 틀린 부분은 목판을 하나하나 도려내어 수정했다면서, 이보다는 별도의 목판을 보충하는 방식이라면 관찮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 책은 간행 후 이황은 물론, 문인들을 중심으로 유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먼저 배삼익은 이해 여름에 趙穆(1524-1606)에게 보냈고, 자신은 가을에 밀양부사 이경우에게 받았다. 또한 『默齋日記』를 통해李文樾(1494-1568)은 경상도 관찰사 강사상에게 받았다. 이문건은 황준량과 이정 등 퇴계학파의 여러 인물들과 교류관계에 있기도 하다.⁸⁵⁾ 또한 1566년에서 1568년 3월 간행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이황이 배삼익에게 보낸 편지에 두 번이나 책을 보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도, 다시 「문공형묘형세도」의 오자를 지적하고 있다. 이는 이황이 개정본이 나와도 계속해서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하고자 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그의

85) 우정임, 2005 『『默齋日記』에 나타난 明宗代 지방의 書籍流通의 실태』 『지역과 역사』 17, 부경역사연구소, 99면.

면모는 『성리서절요』와 『聖學十圖』 등의 수정 및 간행 과정에서도 드러난다.⁸⁶⁾ 참고로 조목의 장서가 경북대에 소장되어 있다. 또한 이항의 소장본은 1570년 易東書院이 건립된 후 23건의 서적과 함께 보내지기도 하였다.⁸⁷⁾

이상의 내용을 통해 이 책은 이항에 의해 최소 2차례 수정되었으며, 각각 간행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16세기 현전본 4종 중 가장 나중에 간행되었으며, 異本人 유희춘 간본을 제외한 3종의 판본을 대조해보면, 필획이나 광곽에 드러나는 칼자국의 모양까지 일치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판본으로 생각되나, 두주의 유무, 본문 글자 및 장차의 수정 등 일부에서 차이를 보인다. 아래의 표는 3종의 판본을 비교한 결과이다.⁸⁸⁾

〈표 5〉 『태사휘국문공연보』 16세기 판본 3종의 제1책 비교

항목	제1종 (일본국립국회도서관)	제2종 (고려대)	제3종 (일본 국립공문서관)	참고사항
제1책 본문 전 목차	『文公先生年譜重刊序』(1-4장)-朱湛의 識(4장)-『文公年譜序』(5-7장)-『太師徽國文公眞像』(8장)-『 <u>文公塋墓形勢圖</u> 』(1장)- <u>贊(2-12장)</u> -『 <u>文公塋墓形勢圖</u> 』(13장)-『 <u>文公世系之圖</u> 』(13장)	『文公先生年譜重刊序』(1-4장)-朱湛의 識(4장)-『文公年譜序』(5-7장)-『太師徽國文公眞像』(1장)- <u>贊(2-12장)</u> -『 <u>文公塋墓形勢圖</u> 』(13장)-『 <u>文公世系之圖</u> 』(14장)	『文公先生年譜重刊序』(1-4장)-朱湛의 識(4장)-『文公年譜序』(5-7장)-『太師徽國文公眞像』(1장)- <u>贊(2-12장)</u> -『 <u>文公塋墓形勢圖</u> 』(13장)-『 <u>文公世系之圖</u> 』(14장)	
문공세계 지도	椿:(中略)/蓮仕考亭書/ 院長	椿:(中略)/蓮仕考亭書/ 院山長	椿:(中略)/蓮仕考亭書/ 院山長	
문공형묘 형세도	- 두주 없음 - 삼도 이면의 제3행 중 '泰元'	- 두주 없음 - 삼도 이면의 제3행 중 '泰元'	- 光州本 『朱子實紀』로 고증한 연호의 오류를 수정했다는 두주 있음 - 삼도 이면의 제3행 중 '蔡元'	동일 책판에 해당 부분만 수정
제1책 제3장表	- 두주에 외곽선 있음 - 두주 : 晦 _ㄹ /誨 _ㄹ 字	- 두주에 외곽선 없음 - 두주 : 晦 _ㄹ /誨 _ㄹ 字	- 두주에 외곽선 없음 - 두주 : 晦 _ㄹ /誨 _ㄹ 字	동일 책판에 두주만 수정

86) 이에 대해서는 최채기, 2013 『退溪 李滉의 『朱子書節要』 編纂과 그 刊行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과 문석윤, 2011 『퇴계(退溪)의 『성학십도(聖學十圖)』 수정(修正)에 관한 연구』 『退溪學報』 130 등에서 다룬 바가 있다.

87) 주77과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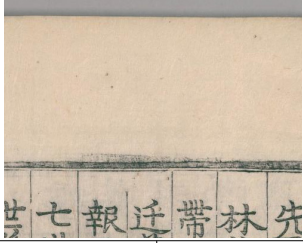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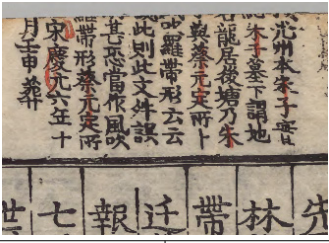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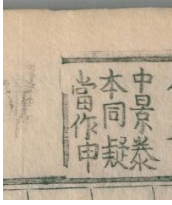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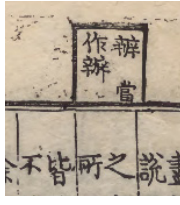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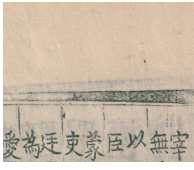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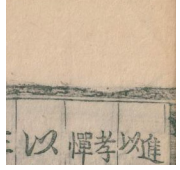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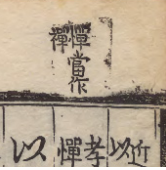
88) 표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각 항목에서 제1종을 기준으로 이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제3장裏	제7행 세주 중 '■'	제7행 세주 중 '峯'	제7행 세주 중 '峯'	동일 책판에 해당 부분만 수정
제6장裏	두주 없음	두주 : ?書/〔學〕 舛	두주 : ?書/〔學〕 舛	동일 책판임
제23장裏	두주 : 氷景泰/ <u>本同</u>	두주 : 氷景泰/ <u>本同</u>	두주 : 氷景泰/ <u>本同誤</u>	동일 책판에 두주만 수정
제32장表	두주 없음	두주 : 時宰/王淮	두주 : 時宰/王淮	동일 책판임
제45장裏	두주 없음	두주 : 憚當作/禪	두주 : 憚當作/禪	동일 책판임
제48장裏	두주 : 辨疑當/作辦	두주 : 辨疑當/作辦	두주 : 辨□當/作辦	동일 책판에 '疑'만 삭제
제51장表	두주 : 愆景泰/同未詳	두주 : 愆景泰本/同未詳	두주 없음	동일 책판임
제55장表	두주 없음	두주 없음	두주 : 兂字通作軌	동일 책판임
제56장表	두주 : (中略) 聿朱子/大全作/津*	두주 : (中略) 聿朱子/大全作/津	두주 : (中略) 聿朱子/大全作/津	동일 책판임
제65장表	두주 : (中略) 中景泰/本同疑/當作申	두주 : (中略) 中景泰/本同疑/當作申	두주 : (中略) 中景泰/本同□/當作申	동일 책판에 '疑'만 삭제
제72장表	두주 없음	두주 : 頃當改項	두주 : 頃當改項	동일 책판임

이를 통해 수정 과정의 전반을 살펴보면, 제2종에서 제1책 『연보』 앞 목차에 변화를 주었고, 두주를 새롭게 두기도 하였지만, 대부분 기존의 주석 내용을 일부만 수정되어 있다. 제3종에서도 추가적으로 수정이 가해져 있다. 본문 전 목차를 비롯하여 제2종의 수정 사항을 유지하는 한편, 『문공형묘형세도』에 광주본 『주자실기』로 본문 중의 연호가 태원이 아닌 채원임을 고증한 내용의 두주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본문의 해당 글자는 수정되어 있다.

또한 두주를 삭제하거나 추가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존의 두주에서 일부를 바꾸거나 삭제하는 식으로 바꿨다. 제48장 이면과 제65장 表面과 같이 일부 삭제된 경우, 새롭게 새긴 것이 아니라 해당 부분만 비워져 있다. 이는 앞서 배삼익이 일일이 목판을 도려 내어가면서 수정했다는 『퇴계집』 수록 서간 내용과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제2종에서 두주에 맞닿아 있는 광곽 부분을 제1종과 비교해보면, 제2종은 기존의 광곽을 일부 깎아내고 추가되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표 6〉 수정 사항 예시

항목	제1·2종		제3종	
「文公世系之圖」				
이후에 해당 글자만 삭제한 부분	① 	② 	① 	② 
이후에 두주가 추가된 경우				

지금까지 현전본 3종의 수정된 양상과 기록으로 추론한 결과 제1종이 가장 이른 시기의 판본이고, 제2종과 제3종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2종에 해당하는 고려대본에 1566년 배삼익의 목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종은 배삼익과 이황이 상의를 하기 이전의 판본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이미 간행된 판본에 수정을 더하여 1566년 제2종을 다시 간행하였고, 제3종은 1568년에 다시 간행한 개간본임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한편, 성균관대 존경각에는 제2책 책말에 1576년 작성 유희춘 발문이 수록된 판본이 소장되어 있다.⁸⁹⁾ 발문의 작성 시기는 5월로 되어 있는데, 『미암일기』에서 6월 22일에 언급된 朴素立(1514-1582)에게 교정본을 줄 때 넘긴 것으로 생각

89) 청구기호: 稀 B09KC-0030, 不分卷 1册: 四周雙邊, 半郭 23.0 × 15.2 cm, 有界, 9行20字, 註雙行, 大黑口: 32.0 × 19.8 cm

된다. 따라서 실제 간행 시기는 이보다 더 늦은 것으로 생각된다.

존경각본을 앞서 살펴본 3종과 비교해본 결과, 목차는 수정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두주 중에는 제12장 이면, 제19장과 같이 일부 삭제된 부분이 있다. 또한 제21-22장의 장차가 뒤바뀌어 있다. 제2책 유희춘의 발문에는 기존의 교정 내용에 약간의 보충을 더하였다는 내용이 보인다.⁹⁰⁾ 따라서 제3종에 다시 수정을 가한 후 새롭게 판각하여 간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② 『주자실기』

『주자실기』의 간행 경위에 대해서는 『퇴계집』에 수록된 서간을 통해 어느 정도 파악해 볼 수 있다. 이황은 1561년 이담에게 보내는 답서에서 보내준 이 책을 보고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점을 많이 알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⁹¹⁾ 그리고 같은 권10에 수록된 시기 미상의 편지에서는 아직 다 검토를 하지 못해서 더 볼 수 있기를 청하고 있다.⁹²⁾ 이후 1565년에는 이황이 이담에게 이 책을 간행하고 싶다는 뜻을 전한다. 그러면서 경주부윤은 병으로 사직하려고 하니 간행은 오직 순천에 있는 이정에게 부탁할 수 있겠다고 하면서, 이 책을 빌린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반납하지 않은 건 이러한 이유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⁹³⁾ 그리고 이듬해인 1566년에 유희춘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담이 보내준 『주자실기』를 대략 훑어보고 돌려주었다면서, 지금 광주에서 간행된 것이 있다는 내용이 있다.⁹⁴⁾

이상의 내용을 통해 이황이 이담의 소장본을 빌려보다가 순천부사 이정에게 간행을 부탁하여, 1566년 광주에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담이 이 책

90) 柳希春, 跋. “文公年譜, 退溪李先生校正標題至矣. 愚以千慮一得略補於其間.”

91) 『退溪集』 권10, 書-答李仲九, 辛酉. “所寄朱子實紀一書, 得見朱先生事迹與門人事迹, 舊所懜惑者, 因此豁然甚多. 尤以佩感, 未及抄傳.”

92) 위와 동일. “朱子實紀, 方有考, 檢未了事, 蒙許且留, 幸幸荷荷. 姓原書, 果非甚切, 今附子中去納, 所云追修草簡, 近附崔生德秀而往, 尋當得達.”

93) 『退溪集』 권11 書-答李仲九, 乙丑. “朱子實記欲刊行, 滉實有此意, 示喻如此, 甚善. 但聞慶尹多病欲辭去, 恐不暇爲此事, 惟順天李剛而可囑, 而歲前, 聞其以事被推, 疑至罷免不行公云, 至今未知如何結末, 徐當問圖之. 其書來此太久, 今亦未還癡, 以此故耳.”

94) 『退溪集』 권12 書-答柳仁仲. “丙寅九月二十八日. (中略) 朱子實記, 曩得李仲九寄示一本, 略窺而反之. 今所刊光州者, 得非其本耶. 此書廣傳, 後學之幸也.”

을 입수하게 된 경위는 전하지 않는다.

이 책이 간행된 후, 유희춘은 물론, 문인들에게도 소장되었음을 기록 및 현존본을 통해 알 수 있다. 유희춘의 경우, 『眉巖日記草』 1567년 10월 6일에 전임 전라도 관찰사인 姜漚(1516-1594)이 유희춘에게 곡물과 여러 물건들을 건네는데, 그중에는 5건의 책도 포함되어 있다.⁹⁵⁾ 일기에는 “紀六冊”으로 되어 있어 서명이 누락되어 있지만, 나머지 서적이 모두 전라도 지역 판본이므로, 『주자실기』인 것으로 보인다.⁹⁶⁾ 이를 통해 유희춘 역시 이 책을 소장하고 있었으나, 이항 혹은 문인들을 통해 입수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책이 판각된 후 역임한 관찰사들 역시 이 책을 인쇄하여 갖고 있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문인 간의 유통을 살펴보면, 먼저 金富倫(1531-1598)은 金誠一(1538-1593)에게 보내는 편지에, 보내준 『주자실기』에 1장이 결락되어 있어서 보충할 종이 1장을 보내니 인쇄를 부탁한다는 내용이 있다.⁹⁷⁾ 이를 통해 김부륜은 김성일을 통해 입수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김성일 역시 직접 인쇄하여 소장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도산서원의 서고인 光明室의 도서를 인수인계하면서 작성된 『傳掌記』에 이 책이 확인되는데, 전라도 관찰사 沈義謙(1535-1587)이 보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항의 문인 중 실물을 통해 소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 이도 있다. 먼저 金富弼(1516-1577)은 실물로 소장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부필은 앞서 언급한 김부륜과 사촌지간이기도 하다. 매 책 앞면지에는 김부필의 호인 「後彫堂藏」이라 묵서되어 있고, 매 책수에는 「富弼/彥遇」(正方形), 「光城/金氏」(正方形), 「後/彫/堂」(鼎形)이라는 그의 인기가 확인된다. 현재 보물 1019호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다.

조목 역시 성암고서박물관 소장본으로 확인된다. 「趙氏穆/士敬章」(長方形), 「月川/書堂」(天圓地方形)이라는 장서인이 있고, 권말에는 1571년 봄에 會葬으로 전

95) 『眉巖日記草』 丁卯 10월 초6일. “姜監司所贈書□…□紀六冊 理學類編二冊·紫陽文集十冊·晦菴語錄五冊·草堂詩集三冊 可謂錫我百朋.”

96) 藤本幸夫, 앞의 책, 784면.

97) 『雪月堂集』 권3, 書-與金士純. “朱子實記, 承領感佩, 但有一張之落, 補印紙一張送上, 乞命印惠送.”

라도에서 온 李咸亨(1550-1577)에게 인쇄를 부탁하여 그해에 받았다는 내용의 목서가 있다.⁹⁸⁾

그리고 입수 경로는 알기 어려우나 鄭逵(1543-1620)는 崔瓘(1563-?)에게 보내는 답서에서 올리려고 했던 이 책의 일부 내용을 별지에 필사한 내용이 있다.⁹⁹⁾ 따라서 정구 역시 이 책을 소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간행에 영향을 준 경우 - 『심경부주』

이 책 역시 조선에 유입 및 초간된 경위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山氣文庫 소장본의 뒷면지에 『右心經附註 湖南光州本 嘉靖二年癸未春 余遊學(中略) 因得之』라는 목서가 있어, 적어도 1523년(중종 18)에는 조선에 전래되어 광주에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⁰⁰⁾ 윤병태는 이에 대해 당시 지방에서 관각하려면 관찰 관찰사의 허락이 있어야 하며, 또 당시 전라도 관찰사는 서적 간행에 적극적이었던 金安國(1478-1543)이었다는 점을 통해 1519년경 金安國이 광주목사에게 간행을 명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¹⁰¹⁾ 『고사촬요』 1576년(선조 9) 을해자본에는 광주, 1585년(선조 18) 목판본에는 남원과 평양도 확인된다.

광주본이 간행된 후 1573년까지 이 책은 여러 지역에서 꾸준히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중종실록』에는 1541년(중종 36)에 중종이 전날 李彥迪(1491-1553)의 말에 따라 진덕수의 『大學衍義』와 이 책을 가지고 오라면서 세자에게 읽힐 방법을 시강원에게 상담하라는 진교를 내리는 내용이 있다.¹⁰²⁾ 참고로 이문건은 1552년(명종 7)에 광주 判官에게 이 책을 받아 소장하고 있기도 하였다.¹⁰³⁾

그러나 이 책을 깊이 수용한 이는 이황이었다. 1566년에 작성한 『心經後論』에

98) 국학자료보존회, 1975 『韓國典籍綜合目錄:誠庵文庫目錄』 4, 153면.

99) 『寒岡集』 권5, 書-答崔監司. “鄙人所欲膾上者, 果是朱子實紀中累朝優崇奏請舊例, 而令案中已先在矣, 已備令並參考矣, 殊爲幸甚. (中略) (別紙) 朱子實紀中, 有成化間禮部頒降祝文, 而其詞則曰, (下略)”

100) 윤병태, 1978 『退溪와 心經附註』 『圖書館學論集』 5, 75면.

101) 위와 동일.

102) 『中宗實錄』 권94, 중종 36년 3월 己酉. “昨日經筵, 副提學李彥迪言, 大學衍義已爲進講, 而眞德秀所撰心經, 亦甚有關於觀覽云, 其冊二件入內. 世子則可於書筵講之乎? 燕閑覽之乎? 言于侍講院.”

103) 『默齋日記』 壬子 1월 16일(우정임, 2005 앞의 논문, 95면에 재수록).

따르면, 그가 처음 이 책을 접한 것은 성균관에서 수학하던 시기이다.¹⁰⁴⁾ 그는 이 책을 『四書』와 『近思錄』보다 더 높이 평가하였고, 그의 제자들에게도 이 책을 추송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앞서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책은 대상 서적 6건 중 16세기까지 조선에서 가장 많이 간행된 서적인데, 이는 이 책을 중시했던 이황의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윤병태는 이황이 尹根壽(1537-1616)와 조목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1564년(명종 19)경에는 해주, 1570년(선조 3)에는 경주에서 간행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였다.¹⁰⁵⁾ 실제 간행이 이루어졌는지는 알기 어려우나, 두 사람 모두 문인으로, 간행에 대한 이황의 영향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조목과 황준량을 비롯한 그의 제자들은 이 책의 심학적 내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는 이황이 「심경후론」을 작성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¹⁰⁶⁾

아래의 표는 16세기 동안 간행된 『심경부주』의 간본이다.¹⁰⁷⁾

<표 7> 16세기 『心經附註』의 간행

『心經後論』유무	판종	간행시기	간행지역	행자수	소장처
×	목판본	(1523년 이전)	광주	10행23자	연세대, 일본 국립공문서관, 蓬左文庫
		(1564년)	평양	10행23자	고려대
		(1564년)	해주	미상	미상(『퇴계집』)
		(1570년))	경주	미상	미상(『퇴계집』)
		(1585년 이전)	남원	미상	미상(『고사촬요』)
○	갑인자본	1573년	교서관	10행17자	미상
	갑인자본 복각본	1573년	교서관	10행17자	고려대, 성암고서박물관, 일본 궁내청 서릉부
○	목판본	미상	文川	10행20자	국립중앙도서관, 성대 존경각

104) 李滉, 心經後論. “滉少時游學漢中, 始見此書於逆旅, 而求得之.”

105) 윤병태, 앞의 논문, 76면; 윤병태, 1979 『十六世紀·十七世紀 刊行 『心經附註』有後論本の 版本: 退溪書誌의 研究 其四』, 『圖書館學論集』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 143-144면.

106) 이와 관련해서는 이상호, 2017 『초기 퇴계학과 제자들의 『심경부주(心經附註)』 이해와 퇴계학의 심학적 경향』, 『국학연구』 34에 자세하다.

107) 이유리, 2019 『17세기 일본 간행 조선본 性理學書의 서지적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13면.

목판본으로 유통되고 있던 이 책은 1573년에 교서관에서 초주갑인자본으로 간행된다. 이때 『심경후론』과 이황의 발문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이는 유희춘에 의한 것임을 『선조실록』을 통해 알 수 있다. 1573년 1월 12일 유희춘은 경연에서 『심경부주』를 이황의 발문과 함께 간행할 것을 청하였고,¹⁰⁸⁾ 같은 달 30일에 교서관에서 다시 『심경부주』와 이황 발문의 간행을 청하고 있다.¹⁰⁹⁾ 추가 내용은 이전 간본과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점으로, 광주본 등이 갑인자본보다 먼저 유통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¹¹⁰⁾

이때의 간행을 추진한 유희춘 역시 이 판본을 소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미암일기초』 1567년 10월 12일에는 閔忠元(1541-?) 및 朴舜元(1543-1615)과 함께 이 책에 대해 논의하고, 13일에는 박순원이 현토를 달아 돌려준 것으로 보아 이미 이 책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¹¹¹⁾

중간되었을 때는 이미 이황이 사망한 후이나, 문인 중 다수가 이 책을 소장했을 가능성이 크다. 배삼익과 琴應夾(1526-1596)의 경우 장서가 남아 있는데, 모두 이때 간행된 갑인자본복각본이다. 이외에 도산서원의 『전장기』에도 이 책이 확인된다. 그러나 李時發(1569-1626)이 보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문인 간의 유통이라 보기는 어렵다.

(3) 간행 관련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소장 및 수용한 경우 - 『천원발미』

『천원발미』 역시 전래 시기는 알 수 없으나, 李穡(1328-1396)의 『牧隱集』에 수록된 시에서 이미 언급되고 있다. 19권에 수록된 『承制外舅至夫婦設酌』 중 마지막 부분의 주석에서 책상에 이 책이 있으나 보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다.¹¹²⁾

108) 『宣祖實錄』 권7, 선조 6년 1월 癸巳. “心經附註李滉有跋尾數張, 議論精功, 請於心經板本添刻, 以示學者.”

109) 『宣祖實錄』 권7, 선조 6년, 1월 辛亥. “校書館啓曰, 心經附註既繫於理學, 李滉跋尾, 又切於學者, 請印出流布.”

110) 이유리, 2017 『일본 소재 辛璉 藏書의 서지학적 고찰』 『大東漢文學』 51, 24면.

111) 『眉巖日記草』 丁卯 10월 12일. “金宰來訪閔君, 鼎坐飲食, 金去後, 余與閔·朴二君, 共論心經附註於外房灯下, 良久而散.”; 10월 14일. “朝朴舜元受心經附註點吐畢.”

112) 『牧隱集』 권19 詩. “承制外舅至夫婦設酌, (中略) 案上, 有天原發微, 亦不省.”

따라서 적어도 고려시대에는 전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때 전래된 책은 시기상 포영이 변정하기 이전 텍스트였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간행과 관련된 기록 중 가장 빠른 것은 成倪(1439-1504)의 『慵齋叢話』이다. 권2의 내용 중 성종이 편찬 및 간행을 명한 서적이 열거되어 있는데, 이 중 『천원발미』가 포함되어 있다.¹¹³⁾

현재 전하는 조선 전기본으로는 을해자혼입보자본이 있다. 그런데 현전본을 살펴보면, 같은 을해자본이라 하더라도 같은 곳에 사용된 활자의 획 모양과 조판 등에 차이를 보인다. 단적으로 매 권수제에 사용된 ‘眷’자가 고려대본에서만 윗 부분이 ‘丿’와 같이 되어 있다. 또한 권2上 중 제27장 이면에서 제28장 표면에 걸쳐 있는 주석 부분이 고려대본에서는 한 글자씩 밀려 있다. 따라서 같은 을해자본이지만 초간본과 중간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표 8>과 같이 현전본을 보면, 고려대본 및 규장각본 외에는 모두 내사본이다. 이 중 확인 가능한 2건의 내사기는 성균관대 존경각에 소장되어 있는 이황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 蓬左文庫에 소장된 朴啓賢(1524-1580)의 것이다. 모두 내사 시기가 1553년(명종 8)이다. 따라서 고려대본 이외의 간본은 늦어도 1553년에는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두 간본의 간행 시기를 알기 어려우므로 두 종류의 을해자본의 선후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규장각본을 통해 간행된 모든 서적이 내사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113) 『慵齋叢話』 권2. “成廟學問淵博, 文詞灑, 命文士撰東文選·輿地要覽·東國通鑑, 又命校書館, 無書不印, 如史記·左傳·四傳春秋, 前後漢書·晉書·唐書·宋史·元史·綱目·通鑑·東國通鑑·大學衍義·古文選·文翰類選·事文類聚·歐蘇文集·書經講義·天原發微·朱子成書·自警編·杜詩·王荊公集·陳簡齋集, 此余之所記者, 其餘所印諸書亦多, 又聚徐剛中四佳集, 金文良拭疣集, 姜景醇私淑齋集, 申泛翁保閑齋集, 惟李胤保及我文安公詩文, 逸失未印可恨也.”

〈표 8〉 을해자본 『천원발미』의 현전본

번호	소장자	印記 ¹¹⁴⁾	內賜記	현소장처
1	〔金榮祖 (1577-1648)〕	孝仲	내사본 아님	고려대, 계명대
1	李滉	宣賜之記, 霞山精舍, 眞城李滉, 景浩之章	嘉靖三十二年六月日/內賜成均館大 司成李滉天原發微一件/命除賜/恩/ 右承旨臣尹(手決)	성대 존경각
2	미상	宣賜之記	내사기 유실	일본 국립공문서관
3	미상	宣賜之記, 敬復齋	내사기 유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4	朴啓賢 (1524-1580)	宣賜之記, 御本	嘉靖三十二年六月日/內賜弘文館正 字朴啓賢天原發微一件/命除賜/恩/ 右承旨臣尹(手決)	일본 蓬左文庫
5	미상	宣賜之記, 金澤文庫	내사기 유실	일본 尊經閣文庫
6	李弘有 (1588-1671)	月城後人, 李弘有, 順吉	내사본 아님	규장각

이황은 1557년에 주희의 『易學啓蒙』을 변석한 『啓蒙傳疑』를 완성하였는데, 이 책이 인용되어 있다.¹¹⁵⁾ 내사받은 시기가 1553년이므로 이황은 내사본을 보고 직접 인용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외의 서적은 도통과 관련되어 있는 것에 비해, 이 책은 주희의 해석을 통해 역학을 이해하는데 사용되었으므로 성격이 다르다 할 수 있다.

참고로 유희춘은 『미암일기초』 1567년 7월 29일 내용으로 미루어 이 책을 김안국의 아들인 金堯選을 통해 접했으며,¹¹⁶⁾ 1573년 5월 14일에는 책쾌로 보이는 朴溫精을 불러 이 책을 물었더니 내일 가져오겠다고 한 내용이 있다.¹¹⁷⁾

114) 근대 이후 소장 기관의 인기는 생략하였다.

115) 『啓蒙傳疑』, 參同契, “河圖行合. 今按節齋此說見天原發微象數篇, 其文如此不同, 姑掇其略於此.: 玉齋圖書之象當位, 不協卦, 不當位, 協卦之辯. 今按天原發微鮑謚齋曰, 玉齋胡氏謂, 河圖五生數屬陽, 五成數屬音.: 三同二異, (中略) 雲莊說亦與胡氏同, 而雲峯胡氏則謂陽不可易, 而陰可易, 專以生數言說. 見天原發微.”

116) 『眉巖日記草』, 丁卯 7월 28일, “歸舍, 金堯選持天原發微十冊來.”

한편, 기대승은 이 책을 원본이 아닌 『성리대전』에 인용된 바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기대승이 이황에게 보내는 답신에 吳澄(1249-1333)이 태극에 동정이 없다고 한 바에 반대하면서 『성리대전』에 인용된 『천원발미』를 언급하였음이 확인된다.¹¹⁸⁾

(4) 소장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문인 간 유통된 경우 - 『회암선생어록류요』

이는 이황이 간행에 관련되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적어도 문인 간에 인쇄 및 전달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이 책은 조선에서의 간행 경위조차 알려져 있지 않아, 누가 언제 간행하였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고사촬요』 1585년 목판본에 이 책이 담양에서 확인된다. 또한 앞서 언급한 『미암일기초』 1567년 10월 6일에 유희춘이 『주자실기』와 함께 강섬에게 받은 책 중 이 책도 포함되어 있어, 직접 소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은 늦어도 1567년 이전에 담양에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宣祖實錄』 1573년 기사에는 유희춘이 이 책의 일부 내용을 들어 임금의 덕목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확인되기도 한다.¹¹⁹⁾ 그러나 이 경우 역시 문인들 간의 수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문인 간 이 책이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로, 고려대 소장본을 들 수 있다.¹²⁰⁾ 이 책에는 金富儀(1525-1582)의 장서인이 있고, 제6책 뒷면지에 『本在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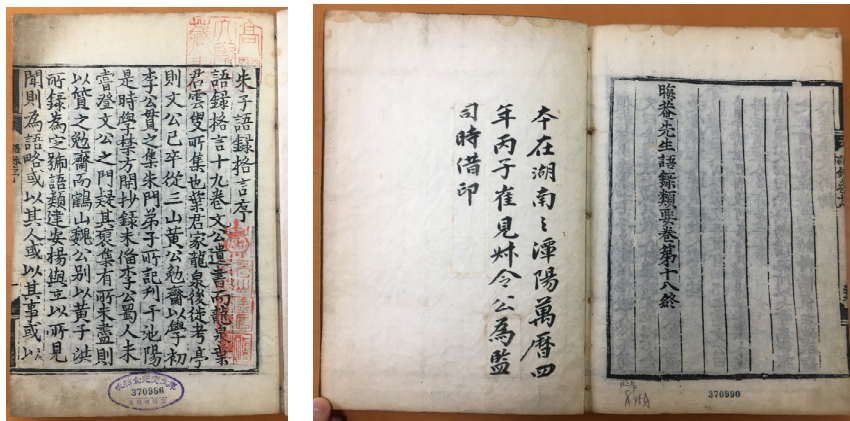
117) 『眉巖日記草』 戊辰 1월 24일. “朴溫精被招來謁, 余訪國朝寶鑑天源發微, 答曰, 皆有之, 當明日持發微來云.”

118) 『高峯集』 권3, 書-答先生問目. “臨川吳氏曰, 太極無動靜, 動靜者, 氣機也. 氣機一動, 則太極亦動, 氣機一靜, 則太極亦靜. 故朱子釋太極圖曰, 太極之有動靜, 是天命之流行也, 此是爲周子分解太極不當言動靜, 以天命之有流行, 故只得以動靜言也. 今詳此說, 質之以周子朱子之說, 太似不同. 太極無動靜, 則動靜之理, 屬之何耶? 天命之流行, 非太極之動靜乎? 其下又曰, 所乘之氣機有動靜, 而太極本然之妙無動靜云云然則氣機自能動靜而太極無與耶? 然則太極亦贅矣. 氣機之所以動靜, 豈非太極之動靜也. 若曰, 太極無動靜, 則天命之流行者出於氣機之爲乎. 太極無朕, 其動靜雖不可見, 而因陰陽之動靜, 以求其所以然, 則太極之有動靜, 可知矣. 今日無動靜, 欲以極贊太極之妙, 而反失其真也. 此說出性理大全, 太極圖太極動而生陽註天原發微及周易乾卦註中吳氏之說, 皆有可疑者, 俟更考極論之.”

119) 『宣祖實錄』 권7, 선조 6년 8월 辛亥. “臣伏見朱子語錄曰, 治道別無說, 人主恭儉好善納諫則治, 反之則亂, 從古有定本.”

南之潭陽萬曆四/年丙子崔見叔令公爲監/司時借印』이라는 목서가 있다. 이를 통해 고려대본은 1576년 崔應龍(1514-1580)이 전라도 관찰사로 재임하던 중 담양에 있는 책판으로 간행하여 김부의에게 준 것임을 알 수 있다. 최응룡이 전라도 관찰사로 재직하던 것은 1575년(선조 8) 8월부터 1576년 8월까지인 것으로 확인되며,¹²¹⁾ 김부의와 마찬가지로 이황의 문인이다. 그는 『미암일기』에도 유희춘에게 서적을 제공한 예가 6건 확인되기도 한다. 따라서 그가 지방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서적을 간행하여 그와 교유관계에 있던 인물들에게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소장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나, 김부의는 『雪月堂先生文集』에서 이 책을 보았다고 밝혔다.¹²²⁾ 또한 문인은 아니지만 李珥(1536-1584)는 1575년에 완성한 『聖學輯要』에 이 책을 인용하고 있다.¹²³⁾



〈그림 8〉 김부의 구장 조선본 『회암선생어록류요』(고려대)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당시 학계를 주도했던 이황과 그의 문인 및 교유관계에 있던 이들 대다수가 관직에 있었으므로, 당시 성리서 간행과 유통에 큰 비중

120) 청구기호: 만송 C1 A95A 1-6

121) 이동희, 1995 『朝鮮時代 全羅道の 監司·守令名單: 全北篇』, 全北大學校 全羅文化研究所, 18면.

122) 『雪月堂先生文集』 권3, 追告. “近見晦菴語錄類要云.”

123) 『聖學輯要』. “橫渠之學, 苦心得之, 乃是致曲, 朱子語錄.”

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비록 이들이 직접 중국에서 입수하지 않았더라도 국내 유통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당시 사행 중 현지에서 서적 입수가 어려웠으므로, 판본의 계통이나 간행 지역 등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고려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들은 서적 간행을 통해 성리학 이해의 심화와 도통 확립 등을 이루어 성리학을 보급시키고자 한 것이었으므로,¹²⁴⁾ 지역보다는 내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을 것이다.

4. 맺음말

휘주는 산지가 많은 자연 환경으로 인해 고대부터 상업과 문방용구 제작 기술이 발달하였다. 남송대에는 주희가 본적인 이곳에 와서 10년간 강학한 영향으로 원대에도 서원을 중심으로 성리학이 수용되고 있었으며, 신안학파는 주희의 학문을 계승하고 있었다. 그리고 명대에는 정교한 판각 기술을 가진 각수 집단이 휘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원대부터 15세기 중반까지 중국에서 출판은 침체되어 있었다. 성화 연간부터 비로소 증가하기 시작했으나, 가정 연간 전까지는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주는 15세기 중반부터 비교적 출판이 활성화되었다.

이처럼 중국 내 출판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시기에 북경 이남으로는 방문할 수 없었던 조선에서는 실제로 서적 입수가 쉽지 않았음을 실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출판 지역까지 고려할 여유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비교적 짧은 기간에 강남 지역의 중소 도시인 휘주에서만 6건이 간행되었다는 점은 당시 중국 내 서적의 출판 및 유통 상황을 시사한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대운하의 건설로 15세기 중반 이후 휘주에서는 상인들의 외지 진출이 활발했던 것도 있지만, 16세기 조선에서 가장 많이 간행된 서적이 성리서였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124) 이에 대해서는 강민구, 2002 『龜巖 李楨과 泗川·晉州地域의 退溪學脈: 李楨의 性理學 研鑽과 文學을 중심으로』 『退溪學과 韓國文化』 31; 우정임, 2016 앞의 논문 등에 자세하다.

당시 조선에서의 수요와 맞아 떨어진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지금까지 확인된 조선 전기 간행 휘주본 6건에 대해 서적교류사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6건의 간행 시기는 대부분 15세기이며, 늦어도 16세기 초반이다. 또한 간행 주체는 관판과 사판, 방각본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다만 『주자실기』를 제외한 나머지 서적은 황씨 및 구씨의 각수명이 보이고 있다. 또한 대부분 휘주 출신 인물의 편저서인데, 4건은 주희와 관련된 서적이다.

그러나 조선에서 입수부터 간행된 경위는 『영규율수』 외에는 자세하지 않다. 다만 『천원발미』를 포함한 나머지 4건의 성리서는 모두 이황 및 문인들과의 관련성이 보인다. 이황이 직접 간행에 관여하거나 소장하지 않았다고 해도, 적어도 지방관으로 있던 문인을 통해 다른 문인에게 전달되는 유통 양상을 보인다.

또한 『천원발미』를 제외한 서적은 지방에서 먼저 간행되었다. 비록 이황과 문인들이 직접 입수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선행 연구에서 밝힌 중앙 관서보다 인맥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 관청의 서적 유통, 특히 16세기 중반 이후 학술과 출판에 주도했던 이황과 문인들이었다는 전반적인 16세기 출판문화의 특색과 부합된다는 점에서 국내에 실질적으로 보급한 것은 이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에서는 휘주 지역에 한하여 살펴보았으나, 당시 이외의 지역의 중국본도 조선에 유통되고 있었다. 이들 서적은 국내에서 수용되다가, 16세기 말 임진왜란으로 일본에 유출되어 그곳에서 다시 수용되었다. 그러므로 추후에는 보다 범위를 넓혀 조선 전기 간행 중국본을 통한 동아시아 서적교류사 및 출판문화사 측면에서의 연구도 필요하다.

주제어 : 徽州, 李滉, 李楨, 裴三益, 柳希春, 瀛奎律髓, 天原發微, 朱子實紀, 朱子年譜, 性理書, 明版本, 16세기 출판문화, 동아시아 출판문화사, 동아시아 서적교류사

투고일(2021. 7. 31), 심사시작일(2021. 8. 9), 심사완료일(2021. 8. 25)

〈Abstract〉

A Bibliographic Study on Huizhou Edions published in Joseon
Dynasty in the 15th and 16th centuries

LEE, Eury *

This study examined the history of book exchange in relation to the printed edition published in Huizhou(徽州), China, during the early Joseon Dynasty. The Joseon dynasty on the Korean Peninsula took the initiative in collecting and disseminating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in type, while individuals also acquired books through direct and indirect routes. In particular, when Confucian intellectuals known as ‘*Sarim*(士林)’ entered the political realm in earnest in the 16th century, they prepared and spread the Confucianism order in Joseon. Meanwhile, they concentrated on acquiring and releasing Chinese New-Confucian books in order to broaden their knowledge of science.

On the other hand, in China, publication stagnation continued from the Yuan(元) Dynasty, and the number of publications began to increase in the mid-15th century. Additionally, it was in the mid-16th century that publishing started to flourish in the Jiangnan(江南) area. As a result, it is hypothesized that, at least until this period, Joseon’s access to Chinese literature was more restricted.

However, official and private publications have been relatively active in Huizhou, China, since the mid-15th century. Indeed, the publication in Huizhou dates back to the Song(宋) Dynasty. The explanation for this could be that Huizhou was *Zhuxi*(朱熹)’s birthplace, his studies were inherited, commerce flourished, and a precise woodblock printing technology was established in this region.

Until the sixteenth century, the regions in which the Chinese version of Joseon was released varied. Six of them have been identified for publication in Huizhou. These books were issued between the 15th and early 16th centuries, and the region is predominantly *Shexian*(歙縣) in Huizhou. Moreover, four publications among them are

* Research Professor,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related to Zhuxi. The Six volumes were published by the late 16th century. This is because Koreans were unable to visit south of Beijing; the Huizhou version released in Joseon demonstrates that the Huizhou literature edition was extensively distributed in China at the time.

Additionally, publications other than <Ying-kui-lu-sui(瀛奎律髓)>, notably those relating to Zhuxi, were accepted by Yi Hwang(李滉), who dominated academic and publishing in Joseon after the mid-16th century, and his literary people. Numerous records and extant manuscripts attest to the occurrence. Thus, the Huizhou edition was used to deepen and disseminate Neo-Confucianism in Joseon in the sixteenth century. Eventually, it was leaked during the Imjin War(壬辰倭亂) and adopted in Japan in the seventeenth century.

Key Words : Huizhou, Yi Hwang, Yi cheong, Bae Samik, Yoo Heechun, Neo-Confucianism book, Ying-kui-lu-sui, History of Publishing Culture in East Asia, History of Book Exchanging in East Asia